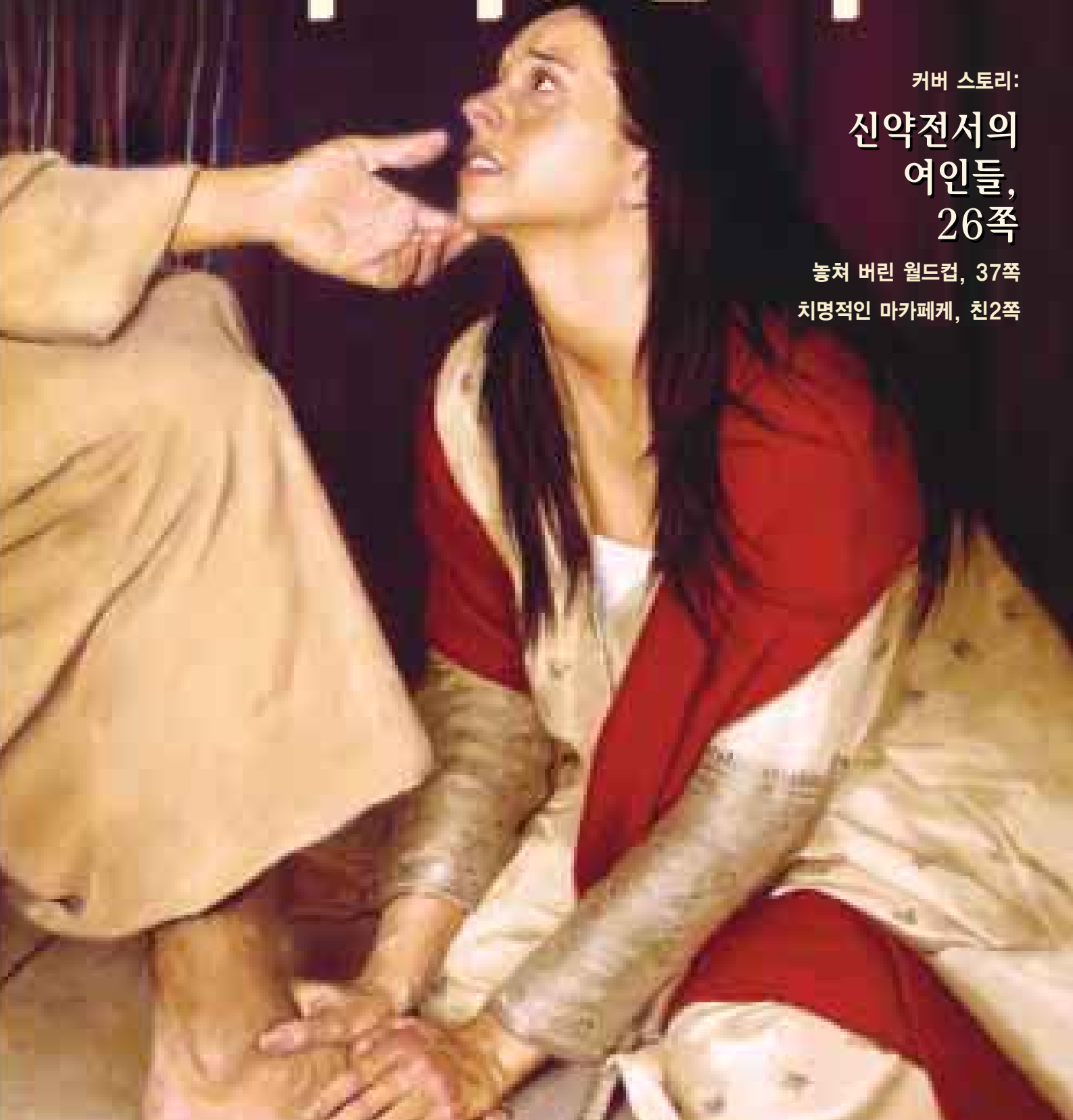


# 리아호나

커버 스토리:

신약전서의  
여인들,  
26쪽

놓쳐 버린 월드컵, 37쪽  
치명적인 마카페케, 친2쪽





**신** 약전서에는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위) 구주를 알고 따랐던 많은 여인과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여인(앞 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주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누가복음 7:38, 47)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신약전서의 여인들”, 26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인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처 옥스, 엠 러셀 벨러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콧,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무치,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생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통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타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드, 캐리 카스텐, 멜라시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카크, 주디스 엠 팔러, 비버안 플슨, 리처드 엠 린니,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김발리 펄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펬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브리트리니 존스  
빈,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하워드, 애리 피 존슨, 드니스 카비, 켈리 제이 파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유크

**배부 책임자:** 렌디 제이 벤슨

통 권: 제495호, 제44권, 제6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박 훈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말레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산할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ne 2007 Vol. 31 No. 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끝없는 전투, 확실한 승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8 흔들리는 세상 속의 확고한 기초 **아담 시 울슨**
- 13 신약전서의 교훈: 속죄에 대한 감사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 26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신약전서의 여인들
- 30 감동을 지지함 **조셉 스테이플스**
- 38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준 것 **라켈 엠 가르시아-레부타르**
- 41 후기 성도의 소리  
그는 책에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에르메네길도 아이 크루즈**  
오렌지색 자동차 **엘윈 시 로비슨**
- 44 일본인 8 형제 **타다시 키나**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가르침과 배움**

- 50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및  
엘 톰 페리 장로**
- 56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74 위대한 교사들의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반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빛을 더함", 16쪽:  
가족 중 한 명에게 상나 바구니를 머리에 쓰게 한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이것이 영적인 암흑과 어떻게 비슷한지 묻는다.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을 가르치는 기사에서 그 예를 선택한다.

"감독을 지지함", 30쪽: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직면하거나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어려움을 적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한다. (대답에는 부모,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 감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의 짐을 가볍게 함"을 읽고 감독의 역할을 살펴본다. 가족이 감독을 더 잘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족 활동을 계획한다.

"놓쳐 버린 월드컵", 37쪽: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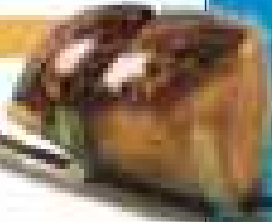




복사 금지

**여선지자 안나, 엘스페스 영**

미망인 안나는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당시에 84세였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누가복음 2:37)  
그녀는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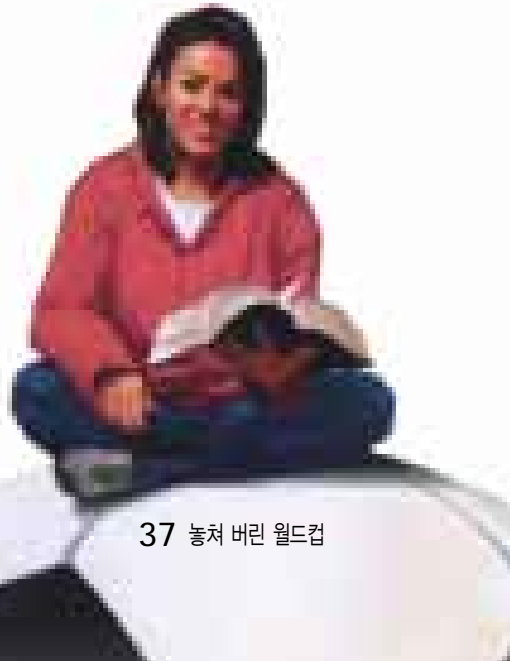


**청소년**

- 16 생활에 빛을 더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 22 질의응답: 몇 가지 실수를 한 후에 저는 교회로 돌아왔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다시 잘못을 범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34 축구나, 선교 사업이나? 알렉산드레 마차두 바스콘셀루스
- 37 놓쳐 버린 월드컵 수자나 알베스 데 멜로
- 48 포스터: 선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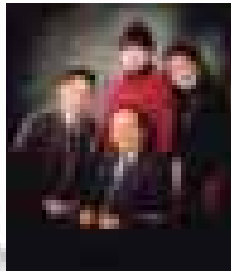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치명적인 마카페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기억하십시오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모범의 힘
- 친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성찬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 친10 친구가 친구에게: 친절 고원용 장로
- 친12 위험으로부터의 기적적인 탈출 마이라 호크 디
- 친16 색칠하기



37 놓쳐 버린 월드컵

**친10 친절**



**표지**

앞: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제프리 하인.  
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니, 윌리엄 후태커.

**친구들 표지**

삽화: 크리스 호크스

이번 호에서 숨겨진 독일어로 된 정의반 반지를 찾으려면서 침례 성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파비아나가 어떤 식으로 좋은 모범이 되었는지 경청하게 한다. 활동을 위해 가족들에게 공을 던진다. 공을 잡은 뒤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지 말하게 한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준 것",**  
38쪽: 지난 가정의 밤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한다. 글쓴이가 성공적인 가정의 밤이 되도록 한 여섯 가지 일들을 복습한다. 가정의 밤 임무 지명을 기록해 두기 위해 도표를 만들고 앞으로 가질 가정의 밤을 위한 주제를

생각해 둔다.

**"치명적인 마카페케",** 친2쪽:  
마카페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사탄이 사람들을 피기 위해 사용하는 유혹들을 열거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현대의 마카페케의 예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러한 유혹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찾아본다. 나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토론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 친구들	선교 사업, 16, 34, 41, 44쪽
가르침, 1쪽	선택이지, 48쪽
가정의 밤, 1, 38쪽	성찬, 친8쪽
간증, 8, 44쪽	속죄, 13, 16쪽
감독, 30쪽	순결, 16쪽
감사, 13쪽	순종, 25쪽
결심, 2쪽	신앙, 8, 16쪽
균간함, 25, 44쪽	신약전서, 26쪽
기도, 친12쪽	십일조, 42쪽
두려움, 22쪽	여성들, 26쪽
모범, 37, 44, 친6쪽	예수 그리스도, 2, 8, 13, 26, 친4, 친8, 친16쪽
물문경, 41쪽	유혹, 친2쪽
반대, 2, 22쪽	지부 회장, 30쪽
방문 교육, 25쪽	지지, 30쪽
방문 교육, 7쪽	초등학교, 친4, 친10쪽
병 고침, 13쪽	친절, 친10쪽
봉사, 30, 44, 친10쪽	김볼, 스펜서 더블류, 친6쪽
빛, 16쪽	
선과 악, 2쪽	

제일회장단 메시지

# 끝없는 전투, 확실한 승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영혼과 관련된  
위대하고 영원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가 태어난 지 거의 백 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그 시간 대부분 동안, 전세계에서 인류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지구 전역에 걸친 이러한 전쟁 때문에 겪는 끔찍한 고통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끔찍한 상처는 육신을 불구로 만들고 정신을 파멸시켰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징집된 젊은이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증오가 남았습니다. 여러 국가의 국고가 낭비되었으며 다시 원 상태로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그야말로 불필요하며 인간의 생명과 국가의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간의 불화를 다루기 위한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방법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계속된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역이나 국가의 주권 문제 그 이상의 싸움입니다. 계시자 요한은 이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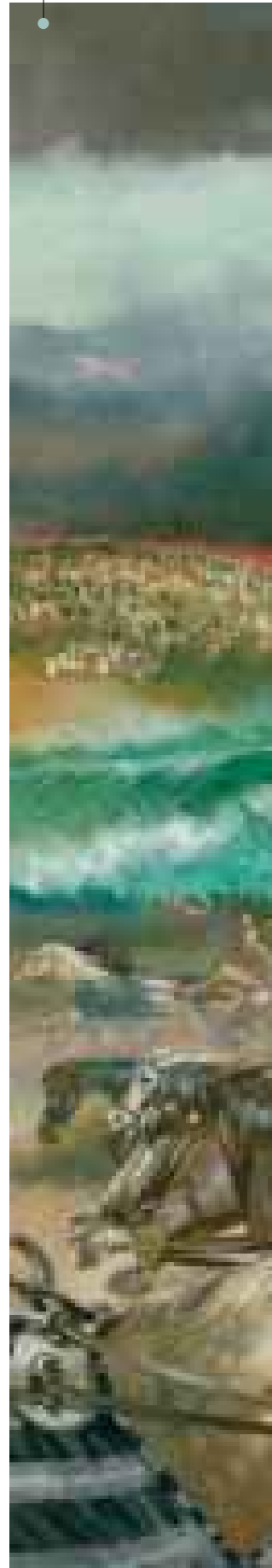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7~9)

## 계속되는 싸움

너무도 격렬하고 치열했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영혼을 건널 때 주로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 보고 배워라! 브리튼의 미용사 복서 김지영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권능과 지상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두 개의 세력, 즉 하나님의 세력과 악마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매우 독특한 경험을 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백성을 두셨을 때 그것은 어느 시대가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아침의 아들 루시퍼와 타락한 수많은 영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전쟁을 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세대에서도 그 일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두실 때마다 그 세력들은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sup>2</sup>

우드럽 회장님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부가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그 험난하고도 무서운 시기를 막 저쳤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들이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그 계시를 받아들였으며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투쟁의 패턴**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적대자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갖고 있는 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너 무도 격렬하고 치열했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  
**다. 그것은 바로 진리와 오류, 선택의지와 강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그를 부인하는 자들 간의 전쟁입니다.**

나아가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한 패턴의 일부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신앙을 파괴하고 약화시키고 업신여기며 거짓 증거하고 유혹하고 꾀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업의 가르침과 표준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데서 우리는 적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전과 같이 격렬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현재 전쟁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은 과거에 희생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남성들, 그리고 우리의 동반자요 동료인 하나님의 딸들은 모두 주님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 무질서한 군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합하고 하나가 되어 행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승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단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 집사, 교사, 제사들이 갖고 있는 신권 직분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약한 자가 강하게 되도록 격려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교성20:59)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청년들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앙과 덕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은 몸과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마약, 술, 담배 및 외설물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부도덕한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위대하고 영원한 투쟁에서 주님의 대업을 행하는 당당한 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의 남성들은 진리와 구원을 위한 이 위대한 전쟁에서 용감하게 주님의 사업을 앞으로 전진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의 아내, 가족, 그리고 신권 책임에 충실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과 명성을 손상시키면 부정직하며 비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여성들은 아내든 어머니든 혹은 동반자를 찾지 못한 자매들간에 그들의 성약과 축복에 충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서 왕국의 지지자로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때때로 오래된 다음 찬송가를 부릅니다.

누가 주의 편이나  
지금 보일 때라  
두렵 없이 문노니  
누가 주의 편이나  
우린 보통 전쟁과  
적을 대항 하잖네  
적 깨어 있으니  
누가 주의 편이나<sup>3</sup>

**헌신하라는 부름**

몇 년 전, 한 친구가 교회의 어떤 회원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다고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가깝게 느껴지지

**우 리는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고 참되다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또한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중 우리의 신앙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그분은 분명 내가 헌신할 것을 원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를 받아 주님의 이름을 받들었고 성찬식에서 주님과 성약을 새롭게 했으며 하나님의 신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진다면 헌신을 해야 하나 자신은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납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영혼에 관련된 위대하고 영원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고 참되다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또한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중 우리의 신앙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흥해 주위에 머물렀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들은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그들을 멸하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뒤에는 군대,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가지신 신뢰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7~8) ■

주

1. *History of the Church*, 6:222.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년), 220쪽.
3. “Who’s on the Lord’s Side?” 영문 찬송가, 260장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출애굽기 14:13~15)

바다가 갈라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따라온 애굽인들은 따라가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으로 전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듣고 기뻐하라. 또 너희 허리를 동이고 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하여 너희가 악한 날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너희가 능히 설 수 있게 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판을 붙이고, 내가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맡긴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끌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 내 영의 겹[을] ... 가지고, ...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붙들려 올려져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7:15~18)

**밝은 미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전세계에서 선택의지와 강제 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선교사들이 진리와 오류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전쟁은 일상 생활, 즉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 친구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며 사랑과 존중, 충성과 성실, 순종과 고결성의 문제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어린이이든, 청소년이든, 또는 성인이든, 우리 모두 각자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으며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실할 수 있기를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된 선과 악의 전쟁에 관한 역사를 복습하기 위해 기사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빛은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밝은 미래” 편을 읽는다. 선과 악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한다.
2. 가족 각자를 위해 작은 종이에 디모데후서 1장 7~8절의 말씀을 적는다. 가족 개개인에게 좀 더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를 종이 뒤에 적도록 권유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그 종이를 붙여 두도록 부탁한다.
3. 각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찬송가를 가져간다. 찬송가에 있는 색인에서 가족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찬송가를 찾도록 권유한다. 찬송가 하나를 선택하여 부르거나 가사를 소리 내어 읽는다. 이러한 가사를 힝클리 회장의 말씀 내용과 비교한다. 헌신하라는 힝클리 회장의 촉구와 주의 편에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밝은 미래에 대한 그의 간증을 읽으면서 마친다.

흔들리는 세상 속의

# 확고한 기초



여러분이 모르는 것 때문에 원래 알던  
것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17** 55년 11월 1일 아침, 강력한 지진 때문에 포르투갈 리스본의 여러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고 해안 도시를 집어삼킨 5~10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으며 3일 이상 화재가 계속됐다. 이 재앙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지진은 단지 건물만을 흔든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종교 축제일인 만성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을 때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은 대륙 전역에 있는 신도들의 신앙 또한 흔들어 놓았다.

이러한 영적인 흔들림은 인생에서 지진처럼 예기치 않게 일어나며 그만한 피해 또한 가져올 수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 스테이크의 회원인 퍼트리셔 모레이라 자매는 홀로 교회에 들어온 후 20년간의 신앙을 의심케 하는 일들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한다. “중중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비회원들이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세상과 복음 사이의 단층선을 따라 압박을 가할 때 그로 인한 진동으로 기초가 약한 자들은 신앙을 잃을 수 있다.

## 굳ود다 그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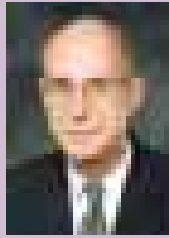
영적인 지각 변동에서 우리의 간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진의 강도를 결정하는 진앙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누가복음 6:47~48 참조)라고 모레이라 자매는 그 주제에 대해 스테이크 내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 [그러한 순간] 우리의  
기초가 커다란 차이를  
낳습니다.”

—1755년 리스본 지진 이후  
원래의 기초 위에 회복된  
까스텔로 상 호르헤에 있는  
퍼트리셔 모레이라.



### 우리 시대의 시험

“시험의 날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하게 키움으로써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인생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는 육신에 속한 욕망에 호소하고 선을 나쁘다 하며 죄란 없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를 공격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폭풍은 이미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이 구주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점점 더 거세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 38쪽.

독신 성인 친구 몇 명과 나는 대화를 통해 말한다.

개종한 지 일년이 막 지난 다릴 네케텔라 형제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분 없이 기초란 없습니다. 어떤 기초는 약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초는 확고하며 참됩니다.”(히라맨서 5:12 참조)

그 어떤 의심, 철학적인 질문, 회의감도 우리 구속주의 반석, 초석, 우리의 참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할 수는 없다.

“저는 제 자신이 그분의 기초 위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네케텔라 형제는 말한다.

###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다음의 후기 성도들은 사탄의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결혼한 이후로 프란시스코 로페스 형제는 자주 영적인 걱정에 휩싸였다. 그는 “함께 일하는 몇몇 사람들이 제 믿음에 대해 회의적이고 제가 믿는 것을 비난하곤 했지요. 그들은 자주 우리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과학을 이용해 제게 질문을 했어요.”라고 말한다.

로페스 형제는 진화와 DNA 등에 대해 토론한 것을 기억한다. 그는 자신이 답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질문들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교회가 틀렸다고 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기초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로페스 형제도 간증했듯이, 일단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준비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두어야 합니다.”<sup>1</sup>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말했다.

### 반석 위에 지으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만들 수 있는가? 아이어링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구주를 믿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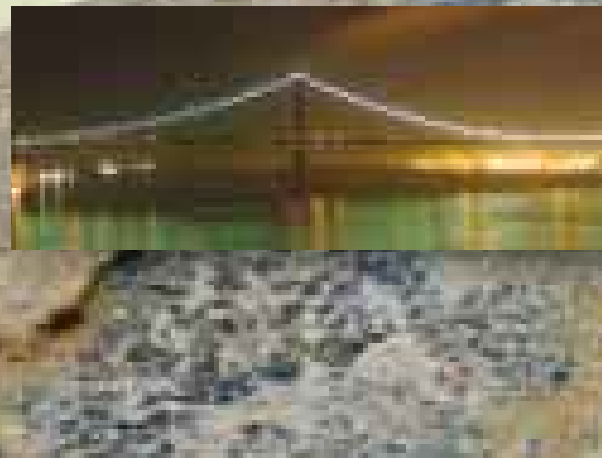
신앙에 자신을 맡기고 속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실히 그리고 오랫동안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지시에 응할 때 구주이신 그 반석 위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능력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우리는 확실한 기초 위에 있게 됩니다.”<sup>2</sup>

그렇게 하는 데는 신앙, 순종, 회개와 시간이 요구된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부름에 봉사하고 계명을 지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라고 모레이라 자매는 말한다. 모레이라 자매의

어머니와 동생은 그녀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하고 나서 교회에 개종했다. “저는 우리가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며 봉사로 생활을 채워야 한다고 하신 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sup>3</sup>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돕는지 배움으로써 시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니파이전서 2:12 참조] 경전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신앙을 키웁니다.”라고 네케텔라 형제는 말한다.



###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

때때로 회원들은 로페즈 형제의 경우처럼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로페즈 형제는 자신이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아는 것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아직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보여 주시리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때가 아닌 그분께서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말이죠.”라고 로페즈 형제는 말한다.

답이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질문에 직면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친구나 직장 동료뿐 아니라 14세 때 침례 받겠다는 그의

결정에 의문을 가졌던 부모에게서도 질문을 받았던 로페즈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답은 경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을 찾고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또한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거나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신과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인내로 계시를 기다림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지도자들의 말씀을 공부해도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교리와 성약 101:16)

“저는 인내하려고 노력합니다. 답을 모른다 해도, 성신은 우리가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우리는 신앙으로 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때때로 그 사실을 잊곤 합니다. ... 신앙이란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험 받아야 합니다.”

저 진 후 재건된 리스본의 일부를 내려다 보는 대럴 네케텔라.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과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담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며 그가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알려 주십니다.”라고 2000년에 앙골라에서 포르투갈로 유학 온 네케텔라 형제는 말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를 기다리는 것은 회복의 역사와도 비슷하다. 교회는 원래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며, 장차 임할 일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위안을 주며, 우리의 소망을 굳게”(교리와 성약 128:21) 함으로써 왔으며, 또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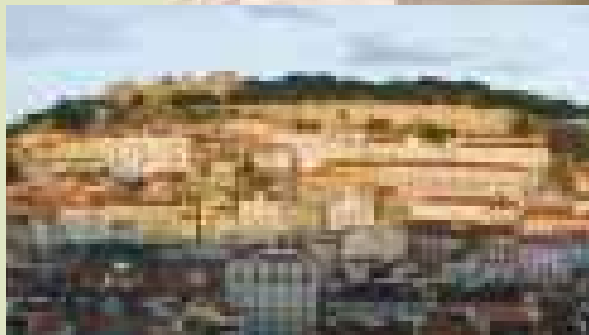
### 후기의 회복

지금의 리스본이 내려다 보이는 까스텔로 상 호르헤(성 조지 성)의 흉벽에서 네케텔라 형제는 도시를 바라보며 1775년 재앙 이후에 일어난 회복의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재건된 도시는 다시 번성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성은 남아 있는 기초를 토대로 회복되었다. 복음의 회복을 통해 사람들은 신앙을 흔드는 원인에 상관없이 확고한 신앙을 어디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알게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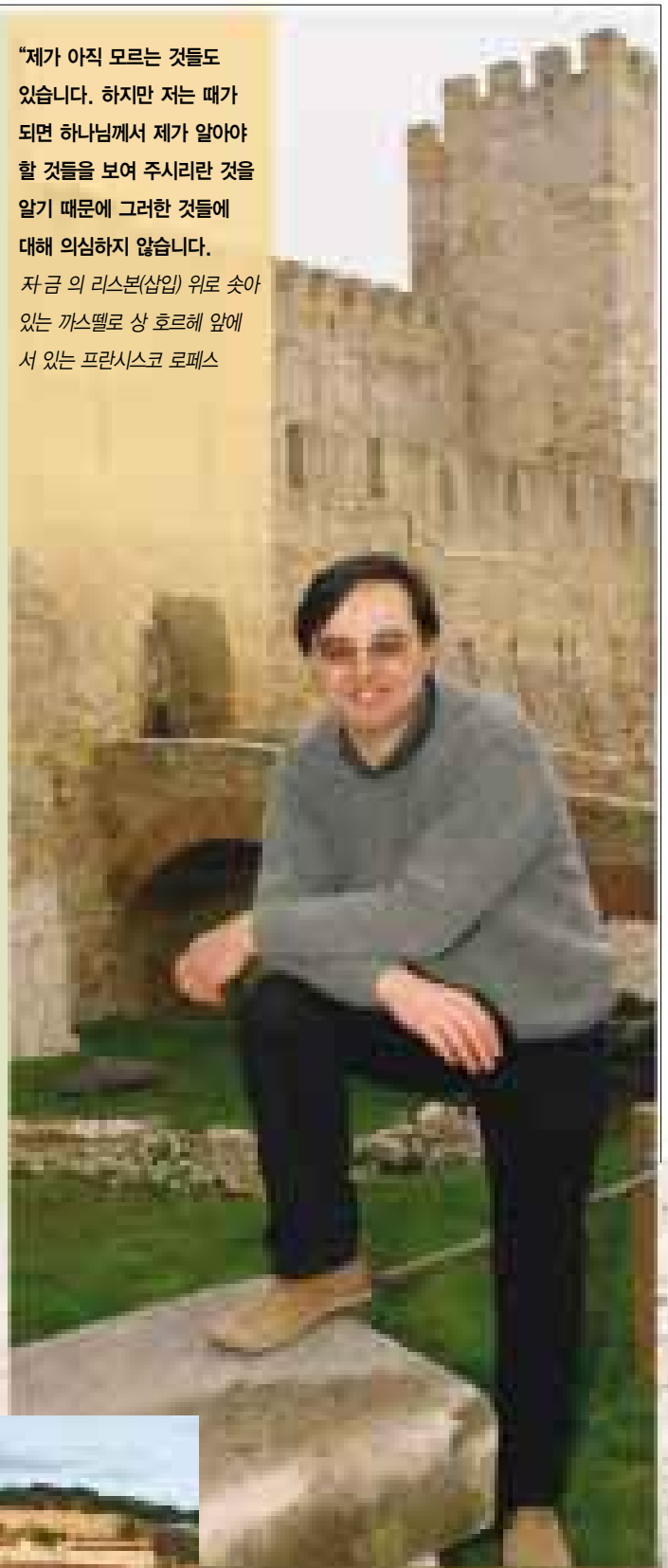
### 주

1.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8쪽.
2. “어린아이와 같이”,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5~16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성공을 위한 공식”, *성도의 빛*, 1995년 8월호, 7쪽 참조.



“제가 아직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보여 주시리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리스본(삽입) 위로 솟아 있는 까스텔로 상 호르헤 앞에서 있는 프란시스코 로페스





# 속죄에 대한 감사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  
칠십인 정원회

**지** 상에서의 성역이 끝날 무렵,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리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39~44)

구주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지상에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간의 슬픔과 죄 그리고 범법예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회개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쓴

잔을 마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에 이어 그분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하시고자 겪으신 또 하나의 잔인하고  
고통스런 고문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을 때 구주의 고통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1830년 3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리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교리와 성약 19:16~19)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  
회원은 회개의 과정을

신약전서의



교훈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때 우리를 위해  
가지셨던 그분의 큰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뱌으며 속죄의 치유 능력을 경험했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법과 고백 사이의 시간 동안 저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범한 끔찍한 일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깊은 암흑 속에 있었고 우울하고 무기력했으며 처음엔 희망을 잃었고 그 다음엔 두려움으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의 참됨과 속죄로 인한 구원의 권능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치유해 줄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가 한 일을 고백하는 것은 제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회개를 하며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께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 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 초래한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파문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도록 허락 받고 다시 성신을 지닐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축복들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속죄의 약속은 가장 분명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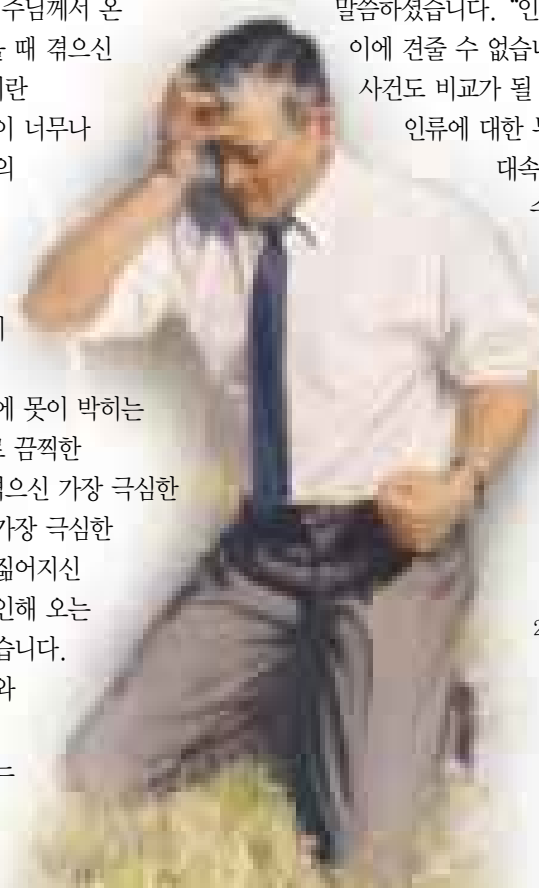
## 구주의 속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내와 저는 속죄가 범법자를 구원해 주고 치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힘을 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 속죄하실 때 우리를 위해 가지셨던 그분의 큰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중과 정도에 있어서 가장 큰 죄의 하나는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우리 생각에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구속주께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가혹해 심지어 주님 몸의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었으나 그분께서 겪으신 가장 극심한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은 바로 주님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범법의 무게로 인해 오는 영적,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정도와 십자가 위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이나 합당치 않은 취향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고난에 대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꺼이 베푸신 관대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sup>1</sup>

구주의 속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상 어떠한 행동도 이에 견줄 수 없습니다. 전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타심과 온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구주의 대속은 모든 인류를 위해 비견할 수 없는 자비로운 행동이 되었습니다.”<sup>2</sup>

우리의 구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라는 이 놀라운 은사에 대해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주

1.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45년), 199쪽.
2. “시대의 정점에서”,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7쪽.



# 생활에 빛을 더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만**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혹적인 유혹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유혹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어두운 데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가는 “나는 ...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가 7:8)

## 빛을 받는 방법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이해력이 깨우침을 받을 때” (교리와 성약 76:12) 일어납니다. 매일 하는 경전 공부는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일깨워 더 많은 지식을 이해하도록 해 줍니다. 저는 경전을 읽고 나서 하루를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평온이 찾아오며 저는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할 때 영적인 빛을 받게 됩니다. 매주 성찬을 취하고 예배 모임에서

영감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은 재충전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빛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봉사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바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영적인 빛을 받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빛을 받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저는 여러분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겠다고 결심한 후 그에게 일어났던 첫번째 시현에 관한 기록을 읽어 보시도록 권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시현이 끝났을 때, 그는 “그 빛이 떠났을 때 나는 기운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역사 1:17, 20)

참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의 방문을 기대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마태복음 6:33) 영적이며 지적인 깨달음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의 방문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영적이며 지적인 깨달음을 더 많이 얻을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선교 사업은 기쁜 일이지는 하지만 재미있는 놀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 우리 신앙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 신앙의 초점에 달려 있습니다. 빛이 억압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해방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까? 젊은이들은 성장해 감에 따라 새로운 힘과 열정 그리고 야망을 느끼지만 이런 새로운 것 가운데 일부는 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을 억제하거나 적절히 자제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엘마의 말씀처럼 “격정을 굴레 씌워, ...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엘마서 38:12)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죄수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죄수들은 말들과 우정을 쌓아 가면서 인내하고 화를 자제하는 법, 서로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체계에 따라 일하는 것의 필요성에 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은 말들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을 교도소로 오게 만든 끔찍한 과오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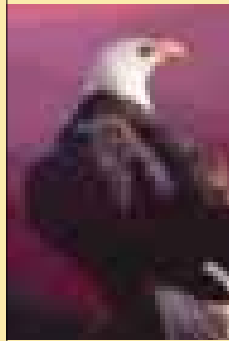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책, 잡지,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 속에서 흔히 정사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타당한 것이라고 거듭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궤변에 속은 일부 젊은이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죠?”라고 질문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인간의 애정 행위에 관한 한,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부정하게 주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19]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없을 때 일부만을 주는 것은 러시아 룰렛 게임(역주:

탄환이 한 발 들어 있는 연발 권총을 가지고 하는 생사를 건 내기)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허락 없이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 애정을 표현하거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영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때 여러분이 영원한 동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며 또한 상대방의 순결함에 합당한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sup>1</sup>

### 우리를 암흑 밖으로 이끌어 내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이나 생활이 아닙니다. 암흑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은 신앙이 자신을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 주고 높이 들어올려 줍니다. 이시아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흑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가면 두려움, 낙담, 죄로 인해 생기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은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복음 10:10)

2001년 9월 11일 이후로 우리들은





테러리스트들과 비행기 납치범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어두움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자랐던 것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여행 가방 검색이나 금속 탐지기를 거치지 않고 비행기 여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테러리스트와 비행기 납치범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적들은 여러분의 또래 친구일 수도 있으며, 이들은 여러분을 제약에서 벗어나게 부추기고 마약, 술, 이성 간의 육체 관계,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판하고 반대하는 의심 많은 회의론자, 우리를 어두움 속에 가두어 영원히 빛을 찾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정신적 테러리스트들은 가치관이라고는 전혀 없는 외설물 배급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두움 속에 거하며 신앙도 없고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 자신보다 더 높은 근원을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며 자기존중 의식이 부족하고 신앙이 약한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빛과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 신앙의 수호자가 됨

우리 모두는 신앙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암흑에서 나와 빛을 향해 가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선언하는 책임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공통된 책임은 오직 각자의 생활에서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그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와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는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속주라는 것과 둘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충만함과 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의 목적은 첫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는 말씀처럼 교회의 회원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회원들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 하나가 되도록 돌보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에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선교 사업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놀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교리와 성약 4편에는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2절)

모든 선교 사업은 개인적인 합당성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고리와 성약 38: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합당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전도의 어려움을 감당해 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다른 봉사의 기회를 통해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속죄를 받아들임

몇 년 전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님께서 일본에 계셨을 때 선교사들은 그에게 갓 개종한 한 젊은 일본인 형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아닌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그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구주의 필요성을 이해하거나 느낄 수 없었으며 복음에 대한 간증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들은 그에게 속죄에 대한 영화를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영화를 보았지만 여전히 간증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안경점에서 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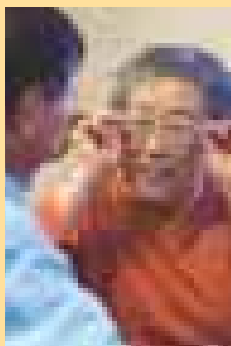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몇 주 전에 그 할머니가 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안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새 안경이 필요했습니다. 지난번에 할머니는 돈이 모자라서 새 안경을 살 돈을 더 모으기 위해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그에게 안경과 가진 돈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돈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한테 돈이 좀 있잖아. 할머니에게 말할 필요가 없지. 모자라는 건 내가 보충하면 돼.’* 그래서 그는 할머니가 갖고 있는 돈이면 된다고 말하고는 마무리된 안경을 찾아갈 날짜를 정했습니다. ...

“할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의 안경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안경을 건넸고, 할머니는 안경을 쓴 후 ‘... 보입니다.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 선교사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찾은 그는 “알겠어요! 제 눈이 열렸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저는 돌이 무덤에서 움직여 그 영화로운 부활절 아침에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음을



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실 수 있습니다.”<sup>2</sup>

우리 모두는 성신이 주는 영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암흑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암흑에서 벗어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성한 계시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1807~1898) 회장님께서서는 “주님께서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실 때 그들을 계시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신성한 인도를 합당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 지속되는 계시

암흑에서 나아와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를 통해 오는 영감과 계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7)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지닌 선지자들은 수세기 동안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아 왔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구주와 더욱더 조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살아 계신 선지자, 즉 교회 회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사망이라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지속적인 계시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계시는 날마다 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구주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지속되는 계시는 사람과 사건들로부터의 외적인 압박에 의해 강제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사회 진보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교회를 주님의 영감과 인도 그리고 지시 하에 이끕니다.

저는 오랫동안 항상 교회의 신성한 참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품어 왔습니다. 그 간증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복음의 참됨에 관한 확실한 지식은 성스러운 사도직에 부름 받기 이전에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수 차례 재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여러분께 이 복음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행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교리와 성약 59:23)는 구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

2002년 9월 8일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

### 주

1.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2000년 10월, 42쪽.
2. “Stretching the Cords of the Tent”, *Ensign*, 1994년 5월, 65~66쪽.
3.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지 호머 더햄 (1946년), 138쪽.

는 할머니에게 안경을 건넸고, 할머니는 안경을 쓴 후 “보입니다.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제 눈이 열렸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의 응답

“몇 가지 실수를 한 후에 저는 교회로 돌아왔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다시 잘못을 범할까 두려웁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리아호나의 대답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매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며 주의하지 않는다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전서 8장에 묘사된 리하이의 시현에서 그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하이가 본 것 중 자매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앞으로 밀고 나아오[는]”, 즉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방향하여 떨어지다가 잃어버린 바”(23절) 되었습니다. 일부는 생명나무에 이르렀으나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28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아와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30절)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런 일들을 자매님이 실행한다면 다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구주께서 자신을 강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회개하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개의치 마십시오.

**1. 힘써 앞으로 나아가라.**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니파이후서 31:20)

**2. 쇠막대를 굳게 붙들라.** 니파이는 쇠막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니파이전서 15:24)라고 말했습니다.

**3. 나무의 열매를 취하라.** 열매를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회개함으로써 속죄가 자신의 삶을 축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을 개의치 않음.** 리하이의 꿈에서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자들의 조롱을 의식한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건물은 세상의 교만과 헛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건물은 기초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히 [졌습니다].” (니파이전서 11:36) 세상의 교만은 덧 없는 것이지만 옳은 일을 행하면 자매님은 영원히 축복 받을 것입니다.

위의 네 가지를 행하는 것은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힐라맨서 5:12)

## 독자들의 대답



3년 전 저는 교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저의 실수로 제 마음이 아팠고 저는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두려웠던 저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 평안을 깨뜨리고 영혼을 슬프게 하는 악이 제 마음에 거하지 않고 제가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그분께 기도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길을

밝혀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매님께서 죄와 실수로 인해 슬픔을 느낀다면 니파이후서 4장 17~35절을 읽어 보세요.

존 산체스 장로, 21세, 페루 피우라 선교부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받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진지하게 회개하고 꾸준한 유혹에 맞서며 무엇보다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예요.

데니스 이, 18세, 칠레 란카구아



두려움을 느낄 때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특별히 경전을 탐구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며 우리가 갖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우리가 이를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나 에이, 16세, 베네수엘라 팔콘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실족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낙담은 사탄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속임수 중 하나는 과거의 죄나 실수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앞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활 신조가 되는 인용문은 "삼진아웃을 당할까 봐 경기 출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할 것입니다.

체드 시, 20세, 미국 유타 주

개인 기도를 통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자매님의 두려움을 모두 털어 놓으세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영을 느끼기 위해 매일 경전을 공부하세요. 가능한 한 많은 영을 느끼기 위해 참석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모임, 성전 방문, 활동 모임에 참여하세요. 감독님과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 약의 힘은 유혹의 힘보다 더

큽니다. 과거의 범법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버리겠다는 여러분의 각오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6:10)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모든 신회원이 알고 모든 오래된 회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14쪽.

재클린 비, 17세, 미국 캔자스 주

자매님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도 교회로 돌아왔고, 이제 선교 사업을 포함한 모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힐라맨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치니 엘, 17세, 필리핀 불라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경전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넘어질 경우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셔야 합니다.

셀레스트 에스, 20세, 노르웨이 오슬로

답변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 호 질문

"저 스스로 술과 담배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딱 한 번만 해 보면 안 될까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단 한 번뿐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보내 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와드와 스테이크(혹은 지부나 지방부) 명칭, 사진을 함께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여러분의 사진 인쇄에 대한 부모님의 허가서 포함)

Questions & Answers 7/07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2007년 7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교회의 여성들이  
올바르고 적절한 것들에 대해 강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여러분의] 반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20)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1838~1918년):**  
“우리가 진리의 대의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하고 인간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악을  
견디며 그들의 악행에 압도된 후에도  
견디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서 압도하는 반대 세력 앞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는  
발전의 용기입니다. 그  
신성한 특성들

소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만약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조용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만을 지닌  
단순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높은 율법과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107~108쪽)

## 내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

### 교회와 성약

**84:106:**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면,  
그는 약한 자를 데리고 갈지니, 그리하여  
... 그 또한 강하게 되게 할지어다.”

###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주님께서는 ‘침례를 통해 그의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 중 일부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갇 지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하루 하루를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로 가득’ 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요청 받을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일을 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성장함”,  
리아호나, 2006년 5월,  
74~75, 76쪽)

###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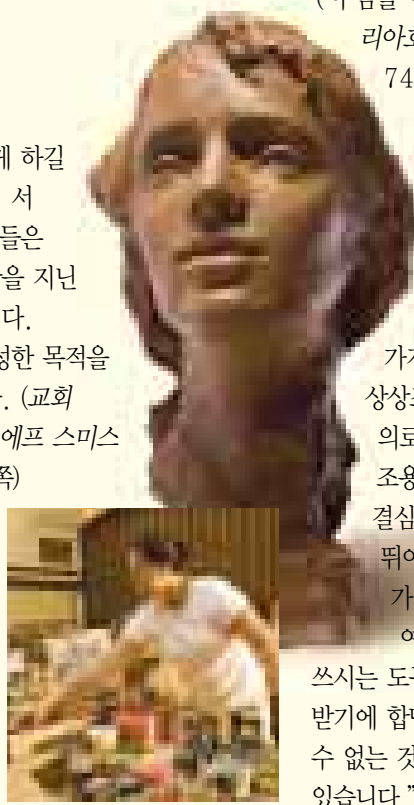
주님의 뜻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성취를  
가져다줄지 여러분은 현재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결심은 현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영감과 힘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신성한 권능을  
받기에 합당해지며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성취해 낼 수  
있습니다.” (“Making the Right

Decisions”, *Ensign*, 1991년 5월,  
34~35쪽)

###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날마다 의로움을  
행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을 단 몇 명만 안다 해도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언젠가 그 책이 펼쳐져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룬]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 헌신, 그리고 행동들을  
증거할 것입니다. [앨마서 26:3]”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 *리아호나*,  
2005년 11월, 114쪽) ■



타투리 © 아트비즈.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먼드, 모델이 포즈를 취함

#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가복음 7:47)

신약전서의 여인들



루타 주 아베라칸보프 ALTUS FINE ART 재단, 복사 금지



© 리조 레몬 스윈들, FOUNDATION ARTS, 복사 금지

위쪽: **아들을 낳을 것ियो**, 리즈 레몬 스윈들. “보라 처녀[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यो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18~25 참조)

오른쪽 위: **생수**, 사이먼 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यो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10; 6~30 참조)



**왼쪽: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마이클 티맘.**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 “슬기 있는 자들[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1, 4; 1~13 참조)

**위쪽: 마리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음, 월터 페인.**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가지 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41~42; 38~42 참조)



**위쪽: 모든 것을 버리고, 엘스페스 영.** 브리스길라와 그녀의 남편 아굴라는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다. 신약 시대의 다른 성도들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여기서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사도행전 18:1~3, 18~19; 로마서 16: 1~3 참조)



**위쪽: 좋은 편, 엘스페스 영.** 형제 자매간인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모두 구주의 충실한 제자였다. 한번은 “마르다 … 가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복음 10:38~39)

이에 대해 그리스도는 말씀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42)

**위 오른쪽: 제자가 됨, 엘스페스 영.** “음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사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사도행전 9:36; 36~43 참조)



© 리즈 레몬 스텐들, FOUNDATION ARTS, 복사 금지





왼쪽: 과부의 렘돈의 일부, 리즈 레몬 스윈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렘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누가복음 21:2~3; 1~4 참조)



우타 조 아메리칸포크 ALTUS FINE ART 재공, 복사 금지

위 왼쪽: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詹 애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 무덤에 가사 ...  
“돌이 ...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  
“...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리고]  
“...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1~2,4~6; 1~13 참조)

위쪽: **신앙으로 만짐의 일부, 사이먼 듀이.**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겂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겂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9:20~21; 18~22 참조) ■

# 감독을 지지함

조셉 스테이플스

**후** 기 성도 교회의 한 감독님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교회 회원이 되기 전의 일이다. 나는 열일곱 살이었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회의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친구는 돕고 싶어했지만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답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고 나는 그 제안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후에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면 난 감독님과 상의해.”라고 그는 말했다. “감독님? 그분이 누군데?” 내가 물었다.

“우리 와드를 이끄시는 분이야”라고 친구가 대답했다.

지금은 내가 그 다음으로 한 질문이 분명한 영의 속삭임이었음을 알지만, 당시 그 질문은 열일곱 살이었던 내 입에서 나올 법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나는 “그분이 나를 만나줄 것 같니?”라고 물었다.

친구는 감독님께 전화하고 곧바로 내게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전 중에 감독님 댁에서 만날 약속이 바로 잡혔다.

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한 아담한 단층집 앞에 차를 세운 나는 그 평범함에 약간 놀랐다. 차도에는 자전거들이 놓여 있었고 잔디는 잘 손질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문간에서 나를 맞이해 준 캐주얼한 셔츠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안녕, 네가 조구나. 나는 맥스웰 감독이야. 들어오렴.” 집안의 조그마한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 머릿속으로 노력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감독의 집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냐? 감독이라면 정식 예복 같은 걸 입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 45분 동안 나는 그 사람이 나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결론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토요일 아침에 귀중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는 영감에 찬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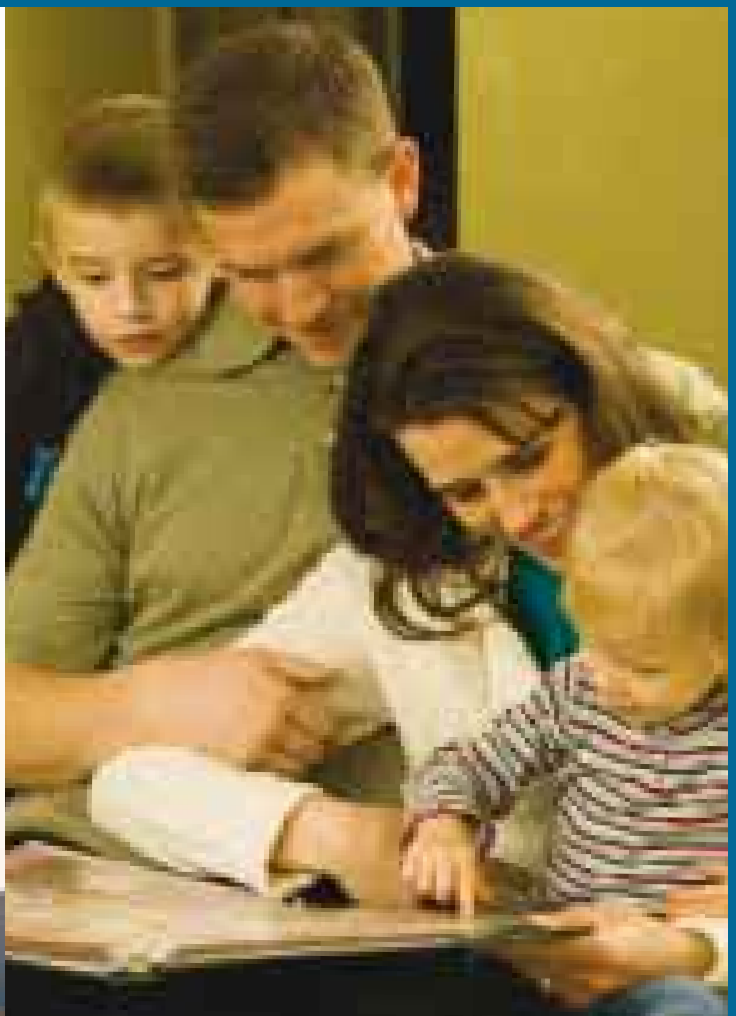
그날 아침 이후로 25여 년이 지났다. 나는 그날 아침 감독님이 주신 조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의 집을 떠나면서 느꼈던 놀라운 명료함과 짐이 가벼워진 기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 만남이 영을 느꼈던 나의 첫 번째 경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해에 교회에 들어왔다. 나를 맥스웰 감독님께 소개해 주었던 친구, 빌이 내게 침례를 주었다. 후에 나는 선교사로 봉사했고 한 아름다운 여성과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맥스웰 감독님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제 나는 다섯 명의 훌륭한

**주** 님께서 우리  
와드의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

사랑 많고 헌신적이며  
인정 많은 감독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이렇게 약속했다. “우리가 감독들을 지지하고 도우며 그들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도록 기도한다면 그들이 교회의 여러 와드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그들의 지도력과 그들의 영감 받은 지시를 따를 기회를 갖게 되므로 우리의 생활은 축복받을 것입니다”<sup>1</sup>

나는 우리가 감독(또는 지부 회장)을 돕고 지지하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도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의 여섯 가지 제안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감독의 가족을 위한 시간을 존중함

일반적으로 감독은 곤경에 처해 있는 와드 회원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중단할 것이다. 그는 양 떼를 지키는 목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알고 신성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는 여러

곳에서 오는 요청 사항에 금방 익숙해진다.

여러분의 감독은 또한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이기도 하며 많은 경우 가정에서 그의 인도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감독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그가 가족과 함께할 시간과 그의 가족의 생계를 담당한 자로서의 책임을 잘 인지하고 그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감독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에게 전화하기를 주저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좀 더 기다려도 되는 일일까?” 또는 “가정 복음 교사라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까?” 물론 합당성에 대한 문제는 오직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상의해야 한다.

감독 및 그밖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지고 있는 특별한 짐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에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과 가족 그리고 결혼에 대해 간증 드립니다. 교회에서

**감** 독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가족과 함께할  
그의 시간과 가족의 생계를  
담당한 그의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 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가  
그들이 맡은  
가정을 적절히 보살필 때  
감독은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충실히 봉사할 시간과 방법을 찾는 동안에도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고 지킬 필요가 있음을  
간증드립니다.”<sup>2</sup>

감독은 언제나 주님의 사업을 위해 바쁘게 일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그의  
영원한 부름을 수행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신중히 계획함으로써 우리는 감독이 바쁘고 힘든  
짐을 잘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감독의 짐을 덜어 줌

감독의 책임 가운데는 위임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이러한 일에는 공식적인 교회 선도 평의회를  
개최하고 십일조 결산을 하고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일과 회개하는 와드 회원의 고백을 듣는  
일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외에 도움이  
필요한 회원을 돌보는 것이나 사교 활동 계획 및  
취업 문제 지원 등의 일은 감독의 짐을 덜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히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이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가 지명 받은  
가정을 적절히 돌보고 그룹 지도자와 정원회 및  
보조 조직 회장이 의롭게 인도할 때, 감독은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

감독을 돕고 그의 짐을 덜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명 받은 임무를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 감독 직분을 존중함

어떤 새로운 감독들은 와드의 일반 회원으로  
있다가 와드 지도자가 되는 변화를 힘들어 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도 봉사하기  
위한 똑같은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다. 주님께서 그  
임무를 위해 그들을 택하셨다는 확인을 받는다  
해도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왕의 갑옷을 입었던  
일처럼 어색할 수 있다.

감독이라는 직책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각 와드의 특정한 개인에게 맡기는  
성스러운 부름이다. 우리는 그 직책을  
존중함으로써 그를 도울 수 있다. 그의 이름이나  
별명, 또는 비공식적인 호칭 대신 “감독님”으로  
불러야 한다. 그를 대할 때는 존경심을 나타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실질적인 임무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감독을 위해 기도함

경전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너의 기도의 구제가 ... 주의 귀에 상달되었고.” (교리와 성약 88:2) 우리가 감독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가족 기도를 하면서 감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순종과 신뢰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게 된다. 많은 감독들이 와드 회원들의 기도를 통해 얻은 힘에 대해 간증했다.

### 감독의 제언을 받아들이고 그의 권고에 따름

감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다. 그는 우리에게 도전을 요하는 과제를 줄 수도 있다. 편안한 지대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직책에서 봉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노력하고 베풀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 자신과 그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써 우리는 감독의 권고를 따르고 그 또는 그의 보좌가 우리에게 주는 부름을 받아들이며 이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

### 지지하며 비판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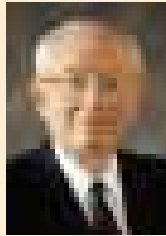
감독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다. 그는 각각 다른 장점과 다른 방식의 지도력을 갖고 있다. 회원으로서 우리는 감독을 다른 감독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감독이 주님께서 그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칭찬을 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몇 년 전 나는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 몇 년 동안 그 직책에서 봉사하면서 나는 내가 느껴 본 것 중 가장 큰 기쁨을 경험했다. 말하자면 여덟 살 된 어린이들과 침례 및 확인을 위한 접견을 하는 기쁨,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하는 기쁨,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성전의 위대한 축복에 대해 가르치는 기쁨이었다. 나는 그 기간 동안 맥스웰 감독님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다. 내 생애에 미친 그분의 영향은 영원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와드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사랑 많고 헌신적이며 인정 많은 감독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다. 그들의 부름은 어렵고 때론 그들의 짐이 무거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을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있다. ■

주

1.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45쪽.
2. “봉사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8쪽.



### 감독의 짐을 덜어 줌

“모든 사람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을 위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감독과 지부 회장이 짊어진 짐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의지하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스라엘의 목자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60쪽.



###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감독만큼 대단한 직분은 없습니다. 부모를 제외하고 감독에게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가 있습니다. ... 그에게 불필요한 시간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독들도 돈을 벌고 자기 가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감독과 그의 보좌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71, 73쪽.

# 축구냐, 선교

알렉산드레 마차두 바스콘셀루스

**다** 른 예비 선교사처럼 로란 살다나 케이로스는 선교사로 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2년 동안 학업과 일, 가족과 친구를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어려운 선택이 있었다. 선교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브라질의 프로 축구 팀에서 뛰느냐 하는 문제였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카레파구아 스테이크 바다티주카 와드의 회원인 로란은 축구 선수의 재능을 물려받았다. 그의 아버지 밀턴은 브라질 전역에서 '티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5개국에서 프로 선수로 활약하여 수많은 선수권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국가 대표 팀에서 활약한 최다 득점자였다.

티타는 아들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챘다. “저는 늘 축구공과 함께 자랐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서너 살 무렵부터

아버지의 훈련장에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늘 프로 선수들 주변에 있었어요.”라고 로란은 회상한다.

정식 훈련은 로란이 여섯 살 때 그

당시 그의 아버지가 활약하고 있던

멕시코에서 시작되었다. 열두 살 때 그는

브라질로 돌아와 엘리트 시합에서 뛰었으며

열일곱 살 때는 프로로 발탁되어 최단 코스인 주니어

리그에서 뛰었다. 로란은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곧 열여덟 살이 되므로 선교

# 사업이냐?

사업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로란은 이 난관을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축구 선수도 되고 싶고 선교사도 되고 싶었어요. 보통 선수들은 주니어 팀에서 곧장 프로리그로 가거든요. 2년 동안 운동을 중단한 다음 21살 때 입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란은 열일곱 살 때 소위 진정한 개종의 시작으로 몇 가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는 매일 묵문경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호 향상 모임, 노변의 모임 그리고 그 밖의 교회 활동에도 좀 더 자주 참석했다. 선교사들과 정기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방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이 복음의 축복을 얻기를 원했으며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그의 열의는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2년간 운동을 중단하면





**앞쪽: 로란은 축구 유니폼을 선교사가 입는 흰 셔츠와 넥타이로 바꾸었다. 아래: 어린 로란이 자신의 운동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맨 위 오른쪽과 맨 아래: 로란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팀과 함께 있는 로란.**



축구 선수 생활은 어떻게 될까?

로란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 바로 그 주에 그는 집으로 배달된 잡지 뉴 이라(New Era)를 보았으며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얼음 위에 핀 꿈”이라는 제목의, 19세에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유망한 스케이트 생활을 중단하여 2006년 동계 올림픽에 나갈 기회를 잃게 된 빙상 스케이트 선수 크리스 오브잔스키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특히 한 부분이 로란의 시선을 끌었다. 크리스가 성찬식에서 청남 회장이 자신의 선교사 부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에 영이 크리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열아홉 살이 되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야.” 크리스는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했기에 저는 누군가 그 곳에 있는지를 살피려고 실제로 몸을 돌렸습니다. 열 배나 강한 느낌이 다시 왔고 저는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sup>1</sup>

로란은 미소를 짓는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19세는 주님께서 정해 주신 나이예요. 저는 그제 바로

저에게 필요한 응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엄청난 짐이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로란이 선교 사업을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었다. 그는 감독과 이야기했고 필요한 준비를 했으며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축구를 뒤로하고 떠날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가 적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로란은 브라질의 수도에 위치한 브라질리아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의 열성 때문에 그는 “행복 장로”로 알려졌다. “저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제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그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배운 후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걸 보면 무척 기뻐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모든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선교사 생활이 언제나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예요. 어려움도 있고 약해지는 순간도 있으며 외로울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선교 사업이 가져다주는 보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언제나 제 머릿속에,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간직할 시간들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몇 달 전 그는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축구 팀에 들어갔으며 축구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신앙으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제 그런 기회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기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

주

1. 새나 가즈나비 인용, 리아호나, 2004년 1월호, 46쪽; New Era, 2004년 1월호, 22쪽.





# 놓쳐 버린 월드컵

수자나 알베스 데 멜로

심화: 다니엘 루이스

**브**라질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바로 축구다. 그리고 월드컵보다 더 큰 축구 행사는 없다. 비토리아 다 콘키스타 브라질 스테이크 브라질 와드의 회원인 파비아나 실바는 1998년 프랑스에서 열린 월드컵의 참관단으로 당첨되자 뿔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선교 사업의 기회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축구 경기를 거둬하며 브라질이 프랑스와의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다른 참관단 당참자들은 파비아나의 표준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과 긍정적인 태도, 품위있는 말씨를 존경했다. 그러나 경기가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결승전을 참관하지 않겠다고 그녀가 말하자 존경심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참관단의 압력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파비아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일요일에 그녀는 그 지역의 집회소

위치를 몰라 호텔방에서 경전을 읽었다. 브라질은 패했고 참관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몇 주 후에 파비아나는 또 한 명의 참관단 당참자인 파비오 판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무척이나 놀랐다. 그는 그녀의 표준에 감명을 받아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후 그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으며 그 편지에는 그가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파비오는 침례를 받은 후 가족 또한 교회에 나오도록 도왔으며, 선교 사업도 했다.

파비아나는 “우리가 지닌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우리 자신의 선한 생활과 모범”<sup>1</sup>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잘 준비된 가운데 브라질 캄피나스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

주

1. 고든 비 힝클리,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1쪽.



#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준 것

가정의 밤을 의미 있게 만든 여섯 가지 방법

라켈 엠 가르시아-레부타르

**복** 음 원리로 굳건히 세워진 가족이 감당하거나 극복하지 못할 만큼 커다란 문제는 없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러므로 남편과 내가 성공적인

가정의 밤의 엄청난 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매년 가정의 밤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초를 쌓는 것이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일 년쯤 되었을 때 내 막내 남동생의 세 딸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왔다. 남편의 막내 여동생과 내 친구 한 명 또한 우리와 함께 잠시동안 지낼 수 있는지 물었으며 그 당시 우리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두 식구만이 아닌 대가족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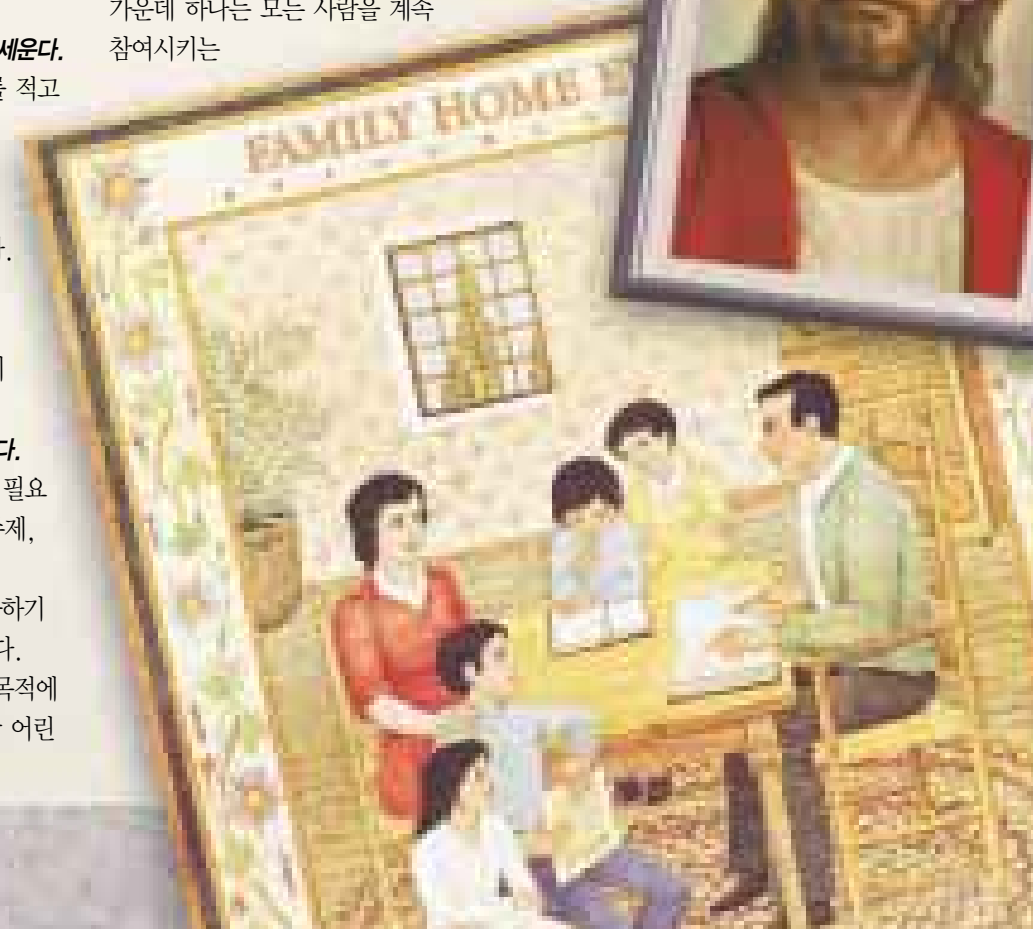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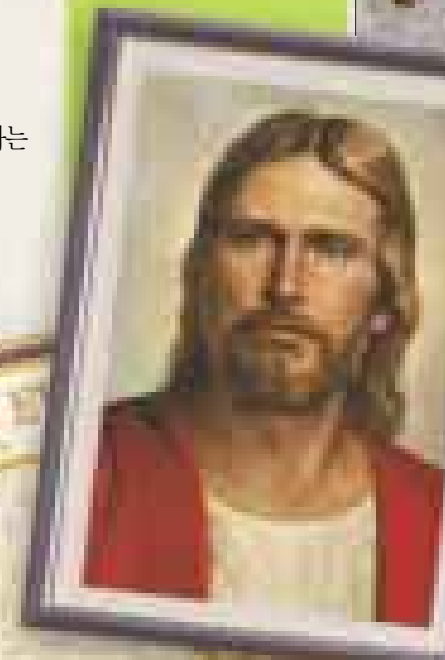
전에는 남편과 나 둘뿐이었으므로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을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잘 지키기로 결심했다.

처음 가정의 밤을 함께 하며 가졌던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 그 후의 우리의 월요일은 예전과 같지 않았으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였다. 평소 조용했던 우리 집은 음악으로 가득차기 시작했으며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아이들은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글 읽는 재미를 키워 나갔다. 수줍음을 타고 임무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은 자신감을 키웠고 참여하는 데 열의를 보였으며 특별한 발표를 하겠다고 자원하기까지 했다. 우리 모두 그 전 월요일 밤에 한 일들과 다음 월요일 밤에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일주일 내내 들떠 있었다. 월요일이 다가오고 가족들이 “깜짝 놀랄 일”을 바빠 준비할 때면 신바람이 나곤 했다.

재미있는 가정의 밤에 대한 기대는 모두에게 각자 해야 할 집안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했다. 가정의 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통찰력과 발견을 가져다 주었다.

다음은 우리의 가정의 밤을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던 아이디어들이다.





**1 계획을 한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져 매주의 주제를 결정하고 3개월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동의했다.

**2 모두가 참여하게 한다.** 주제와 활동을 계획하는 것부터 공과 지명과 매주 가정의 밤 사회자가 되는 것까지 모든 사람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수줍음을 타고 주저하는 사람들은 지명 받은 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가정의 밤에 그들이 기여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격려와 도움을 받았다.

**3 체계적이면서도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세운다.** 우리는 기록부를 만들어 매주의 주제를 적고 가정의 밤 시간마다 있었던 일을 적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했던 공과, 게임, 활동 주제를 기억할 수 있었고 전에 주어진 임무가 수행되었는지 쉽게 점검할 수 있었다. 다음 주의 주제를 알리고 다음 가정의 밤을 위한 임무 지명을 주며 기록부에 적는 일은 사회자의 책임이다. 또한 사회자는 모두에게 다음 가정의 밤에서 할 일을 상기시켜 준다.

**4 가족의 필요 및 관심 사항을 충족시켜 준다.** 가정의 밤 시간 동안 구체적인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주제, 공과, 활동, 그리고 게임까지도 신중하게 선택했다. 그날 밤의 가정의 밤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서로 연결 지었다. 처음에는 남편과 내가 모든 활동이 주제와 목적에 연관되게 했지만, 곧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감사를 표시함"이란 공과를 마친 후 사회자는 우리를 빙 둘러 앉게 하고 모두가 전하는 감사함을 듣게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열거했다.

**5 일관성을 가지고 확고하게 행한다.**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하는 데 있어 최대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을 계속 참여시키는



**가** 정의 밤을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밤의 모든 부분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것이였다.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누군가를  
돕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한 주 내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켜보고 시간을 내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추천이나 요청이 있으면 벽에  
메모를 붙이거나 점검표를 만들어 도움을 주었다.

**6**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우리는 공과  
자료, 참고 교재 및 가정의 밤 자료집  
(물품번호 31106 320)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교재, 게임 책, 아이디어 책, 경전 및 교회 잡지와  
같은 가족 서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자원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든지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문구를  
비치해 두었다.

남편과 나는 또한 가정의 밤이  
가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됨을 알았다.  
저기에는 꾸지람이나 비난이나  
잔소리나 비웃음이 없었다. 가정의 밤은  
사랑을 전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가치를  
심어주고 신뢰를 쌓고 지식을 증가시키며 영원한  
원리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가정의 밤을 갖기  
위해 계속 단합된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은  
축복을 받았다.

나의 조카들은 그 이후로 그들의 아버지한테  
돌아갔으며 시누이는 자신의 집으로 이사했고  
나의 친구는 이제 그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  
기숙사에 살고 있다. 우리는 또다시 두 식구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재미있고 뜻 깊은 가정의 밤을 갖고 있다. 때로는  
다른 가족을 초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잘  
알게 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함으로써 기쁨을 얻는다. 우리의 주제와  
활동은 간단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우리는 가정의 밤이 영감 받은  
프로그램임을 의심치 않는다. 의미  
있는 가정의 밤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요새를  
강화하기 위해 돌을 쌓는 것과 같다. ■



## 그는 책에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에르메네길도 아이 크루즈

**나**는 마지막 선교 지역인 필리핀 이로이로 모로에서 해임 되기 전에 한 가족을 침례 주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 어느 날 동반자와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정직한 사람에게 인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 어떤 집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남자가 계단으로 내려와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우리는 그와 친구가 되었고 그가 변호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많은 질문을 했고

그 중에는 가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그는 아주 말을 잘 했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도 그를 대하기가 힘들었다. 그는 가르치기 어려운 구도자였다. 우리는 그에게 물문경을 소개했지만 그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코 물문경을 읽지 않았으며 마치 손을 대기라도 하면 손이 타버릴 것처럼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선교부 회장 보조가 나의 후임 동반자 알코스 장로와 함께 전도하기 위해 왔다. 그 사람을 만나 본 후 그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간청했던 기도를 떠올렸을 때 감미롭고 평화로운 안도의

느낌이 찾아왔다. 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다. 우리는 이 사람과 무언가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서서히 그의 마음이 바뀌었으며 그는 우리가 소개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떠나기 전에 이 가족에게 침례와 확인을 줄 수 없겠다는 실망감을 느꼈다. 내가 해임될 날은 불과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슬픈 목소리로 “가르시아 형제님, 저는 저의 선교 사업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니오. 크루즈 장로님,

**우**리가 물문경을 소개했을 때 우리의 구도자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정을 쌓아 왔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의 다음 말에 너무나 기뻐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일요일에 장로님의 교회에 갈 거예요.”

그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왔고 회원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나는 성찬식 동안에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를 보았다. 그는 그날 행복하고 고양된 마음으로 집으로 갔다. 나는 그가 감동받았음을 알았다.

적절한 때가 되고 그가 준비 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에게 침례와 확인을 받으라는 목표를 주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물몬경을 읽으라는 목표도 주었고 동반자와 함께 나는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금식했다.

1986년 5월 4일은 선교 지역에서의 나의 마지막 일요일이었다. 이날은 금식 간증회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진솔한 마지막 간증을 전했다. 내가 간증한 후에 처음에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이 변호사가 일어서서 물몬경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온 몸이 떨렸고 그가 물몬경을 들고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물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외칠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간증을 듣고 우리는 너무나 기뻐했다.

그날 오후 와드의 많은 사람들이 가르시아 가족의 침례식에 참석했다.

선교사에서 해임되고 난 뒤에도 나는 정기적으로 가르시아 형제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주일 학교 회장이 된 것을 기쁘게 알려 주었다. 후에 그는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가진 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와 주었다. 드디어 그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았고 그 후 필리핀 바코로드 선교부 회장단 보좌로 부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된 복음으로

개종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 물몬경을 만지면 손이 타 버릴 것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이 그 책의 신성함과 참됨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이 된 것이다.

## 오렌지색 자동차

엘윈 시 로비슨

**결** 혼 초에 아내와 나는 미국 동북부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곳의 겨울은 혹독했고 길에는 소금이 많이 뿌려져 있었다. 여러 해의 겨울이 지나자 우리의 낡은 자동차 본체는 조금씩 부식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 차를 타는 사람들은 차의 바닥에 난 구멍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나는 알루미늄 시트 몇 장과 판리벳(역주: 자동차의 철판을 고정시키는 나사)를 구입하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우리가 주말에 방문하면 자동차를 손봐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는 금요일 밤 늦게 도착했고 아버지와 나는 자동차 바닥을 손보기 위해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고무 매트를 걷어내고 금속 시트에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단단한 금속을 찾기 시작했다. 부식된 금속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고는 매트를 깔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다섯 시간 동안의 느리고 조심스러운 운전 끝에 우리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전화 벨이 울렸다. 어머니는 새 차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시고 우리가 어머니의 현 차라도 가지길 원하는지

물어보셨다. 아버지는 그 차가 3년이 되었으며 많은 거리를 주행했다고 주의를 주셨다. 어머니께서는 그 차가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몰았으니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농담하셨다. 우리는 웃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와 같은 이 선물을 축하하며 아파트 주위를 춤추며 다녔다.

그 오렌지색 자동차는 훌륭했다. 네 개의 문과 에어컨이 있었고 녹슨 구멍도 없었다. 이 차는 내가 대학원을 마치고 첫 직장에 나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했다. 6년간의 주행으로 129,000킬로미터가 추가되었고 지금까지도 출퇴근 때 타는 이 차는 이제 불품없게 되었다. 빛나는 오렌지색 페인트는 햇빛으로 퇴색되었으며, 에어컨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운전석 창문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필요해서) 어머니는 또다시 새 차를 구입했다. 어머니의 현 차에 대한 대차 가치가 너무 낮아 부모님은 그 차를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좀 더 나은 차를 갖는다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오렌지색 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했다. 그 차는 겉보기에는 불품이 없었지만 엔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차를 폐차장으로 갖고 간다면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워드 서기가 그 차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기실로 들어갔다. 그와 그의 아내는 십대의 자녀 여럿을 두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양했다, 그는 차가 더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기실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한 회원이 차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솔깃해 했으므로 나는 그에게 그 차가 작동되지 않았던 경우를 모두 말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 차의 타이어 상태가 좋고 엔진도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항상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이 차를 몰았으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차가 한 대 밖에 없었으며 아내는 낮에 일하고 그는 밤에 일했다. 아내가 차를 써야 할 때 그도 차가 필요했으므로 더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차가 한 대 더 있으면 그들의 수입도 늘어나고 그에겐 승진의 기회도 열릴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그 낡은 오렌지색 자동차를 그에게 주었다.

3개월 후 우리와 그의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이 일은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그와 그의 아내는 우리가 차를 주었을 당시의 그들의 사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고 싶어 했다. 젊은 부부에게 흔히 있는 일처럼 그들은 돈이 부족했고 첫 아기의

**우** 리는 우리의 낡은 차를 줄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출생과 더불어 지출은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갔다. 십일조가 밀리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정은 더 나빠졌지만 그들은 이 시련을 이겨낼 길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6개월 동안 십일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고 주님과 함께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꼈다. 내가 서기실로 들어갔던 그 일요일 아침에 그는 다음달 동안 그의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 하면서 그의 십일조 수표를 쓰고 있던 중이었다.

처음에는 그 차가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몰던 차라고 농담했던 것이 기억나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우리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보고 놀랐다. 수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의 곤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던 것이다.

나는 종종 이 젊은 부부가 보여준 신앙의 모범을 되돌아 본다. 내가 신앙을 보이면 어디에선가 나의 곤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에 누군가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고 이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 행사하기 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

# 8 일본인 형제



1962년, 여덟 명의 아들과 함께한 하루 키나  
자매. 오른쪽: 여섯 자녀들과 함께한 키나  
자매와 그녀의 남편인 겐 에이.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우리  
가족과 일본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키나 자매에게 복음을  
가르친 선교사들 중 한 명인  
푸찌가미 장로. 85세의 키나  
자매. 1970년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서 아들  
토시미쯔와 손자와 함께한  
키나 자매.

## 타다시 키나

**나**의 부모님은 여덟명의 아들과 딸  
하나로 총 아홉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어린 제 여동생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죽었습니다. 전쟁 후 아버지는  
오키나와 주섬 북부에 위치한 나고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열어 성공적으로 운영하셨습니다.  
1954년, 제 동생이 두 살이고 제일 큰 형이  
열일곱 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마흔 살의 나이에 미망인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때로는  
아버지를 뒤따라 가시고 싶어했지만 여덟 명의  
아들들을 남겨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생계를  
의존했으나 이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함으로써 슬픔을 잊고 집에 와서는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여덟 명의 개구쟁이  
아들들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언제 일어나시고 언제  
주무시는지를 그 당시 미처 몰랐다는 사실을  
나중에 커서야 깨달았습니다.

###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나고를 떠나 오키나와의 행정 중심지인 나하로

이사하셨습니다. 몇 년 뒤인 1967년경  
선교사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사탕수수 밭과 묘지로 둘러싸인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은 험했고 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잦은 장로와 하와이에서 온 재미  
일본인 이세인 푸찌가미 장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의 교육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고 우리가 선교사들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로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복음에 대해 배우면서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선교사들이 자기  
비용으로 선교 사업을 한다는 것과 잦은 장로가  
어릴 때 자동차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누나와 함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래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토론하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영을 느꼈고 이것이 우리 가족이  
찾던 교회임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먼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오키나와 마부니에 있는 이 기념비에는 오키나와 전투의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타다시 키나가 두 살 때 죽은 여동생 푸미코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다. 아래: 한 침례식에서 타다시 키나 선교사(오른쪽), 오른쪽 아래: 1972년 선교 사업 시절의 막내 아들 아키라 키나.

어머니는 선교사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사랑과 친절함 행동에 감동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복음을 배워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여덟 명 있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들이 모두 개종하면 교회에 신권 소유자가 여덟 명 늘어나겠죠. 이 아이들은 장차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 선교사로 봉사함

나와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한 명씩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의 삶은 복음과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아들과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돕기 시작했고 삶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중 네 명은 선교사로서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형제들 중  
오키나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형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동생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선 “애가 예전에 그렇게 제멋대로였던 내 동생인지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솔선해서 교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형은 27세에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뇌로 가득찼고 늘상 술을 마시며 놀러 다녔습니다. 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형은 복음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배운 후 침례와 확인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교회에서 훌륭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삶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고 삶의 목적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선교사업을 하고 있던 우리 형제들은 이 형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나의 형제들과 나는 우리 선교부 회장님들로부터, 그리고 교회 회원들과 동반자,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했고 영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와 확인을 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가족 재회 모임에서 키나 자매(중앙)가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다.

개종자들 중 한 명은 현재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고등 평의원 및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가족들은 성전에서 인봉 받았고 자녀들은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일본 곳곳에 심었고 그 씨앗들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는 어머니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 왕국을 건설함

부름을 받고 봉사하는 가운데 나의 형들과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들이 성전에서 인봉 받았으며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서 아버지와 누나, 그리고 개종한 형제들과 인봉 되었습니다. 성전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친척들을 방문하여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상호부조회 및 청년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해 오셨습니다.

키나 가족은 현재 며느리, 손자 및 증손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66명입니다. 이들 중 51명이 교회 회원이며, 10명은 귀환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손자와 증손자들도 나이가 되면 선교사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키나 가족은 다음과 같은 부름에 봉사해 왔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단(또는 지부 회장단) 두 명, 고등 평의원 세 명, 감독단(또는 지부 회장단) 일곱 명, 대체사 그룹 지도자 네 명, 장로정원회 회장단 여덟 명, 선교 책임자 여섯 명,

상호부조회 회장단 일곱 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축복이라 여깁니다.

### 어머니의 간증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녀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강한 간증을 얻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을 가지셨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선교사를 소개했으며 종종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는 친척 50명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주님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현재 90세인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어머니로서의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녀들을 그분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이제 자녀들과 손자들을 볼 나이가 되었으며 어머니의 간증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참되며 진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훌륭한 형제 자매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변화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키나와에서 주님 손 안의 도구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와 성전을 세우며 시온 건설을 도울 것입니다. ■

## 우리의 선택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 일은 교회 잡지를 만드는 일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독자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림 하나를 택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청했고 여러분은 여러 아이디어를 보내 주셨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백 통의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경우 거의 똑같은 단어의 유사한 제안들이 전세계에서 같은 날에 도착했으며, 한 편만을 당선작으로 뽑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의 약 여섯 가지 주제가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했습니다.

-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가족, 친구, 교회에)
- 선지자를 따르라.
- 홀로 굳건히 설 용기를 내십시오.
- 회개-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 옳은 일을 선택하라.
-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대부분 옳은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우승자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원리들을 찾고 나누기 위해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며 영과 교통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

# 선택하라



선과 악은 서로 대립하는 양극이다.  
(니파이후서 2:27 참조)



#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가르침과 배움

2007년 2월 10일



이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자료는 [www.lds.org](http://www.lds.org)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가르침과 배움

**패커 회장:** 이 훈련의 주제는 교실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지도자, 교사, 선교사, 그리고 부모로서 복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가르치고 배우라는 평생의 목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엘 톰 페리 장로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훌륭한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원리들에 관해 훈련하겠습니다. 저의 임무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관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던 몇 가지 경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경청하신다면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기꺼이 배우려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희의 대화가 끝나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께서 가르칠 준비를 하는 것에 관해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 장로님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예를 보여 주기 위해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직접 들어가실 것입니다.

십이사도 중 누구라도 이 시범 공과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접근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모든 교사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 성품, 그리고 간증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 지도자들의 책임

지도자들은 평의회나 접견 중에 또는 예배 모임에서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한 교사가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일이 회원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제일회장단은 2006년 11월 17일자로 워드 및 스테이크 교사 향상 책임자의 직책을 중지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 서한과 함께 “교사 향상을 위한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목록이 동봉되었습니다. 우리는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복음 교육과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서한에 언급된 제언사항 및 자료들과 함께 본 방송에서 가르친 원리들을 논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교사 향상을 위해 특별 모임을 갖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의회와 접견을 통해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훈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페리 장로:** 회장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책에는 유능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는 매우 중요한 부름입니다. 잠시 동안 각 교회 부름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자료는 여러분이 교사와 학습자로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적용하려면 각 발표 자료의 시작 부분에 있는 노란색 상자 속의 정보를 읽어 보십시오. 또한 성구와 중요 문구들을 표시하고 마음에 와 닿는 느낌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패커 회장님의 개회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 나은 교사와 학습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찾아보십시오.

다음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느낌들을 적어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칠 때 확실하게 영을 지니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패커 회장님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학습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패커 회장:** 제가 세미나리 책임자로 지명되었을 때,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리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방법과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조언하라는 임무에 고용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급료도 받았습니 다. 저는 세미나리 수업에 참여하여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저 역시 가르칠 때마다 범했던 잘못이었기에 상당히 낮이 뜨거웠습니 다. 그러면서 그 일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 다.

해롤드 비 리 장로님과 매리온 지 롬니 장로님은 항상 가르치셨으며, 어떤 면에서든 제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시려고 각별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현재의 이 직책이나 부름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이유 중 한 가지는 저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배우고 싶어했으며,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이며, 때로는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들까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두 위대한 교사들께서는 저를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롬니 형제님은 가끔 저와 마주쳤을 때 “패커 형제, 자네에게 말해 줄 게 있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언가 가르침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는 늘 그 가르침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일찍이 연로한 분들의 경험에서 알기 나오는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큰 가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번은 어떤 스테이크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분들 앞에 있으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비록 아이다호 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살았지만, 그분은 “강연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저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 모임에 가려고 늘 애씁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늘 연로하신 분들과 가까이 지냈습니 다.(지금은 제가 그 연로한 사람이 되었지요.)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이 다른 사도들만큼 빨리 걷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다리면서 그분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맨 뒤에서 함께 건물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는 사도들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리차즈 형제님을 돌보아 드리시다니 참 친절하십니다.” 이 말에 저는 ‘형제님은 저의 이기적인 동기를 모르시는군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윌포드 우드럽 회장을 기억하시기에 그분에 관한 말씀을 곧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 대 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일어납니 다.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가르침의 원리입니다.(교리와 성약 88:124 참조) 그러나 이를 위해 쉬울 수도, 혹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며, 그런 다음 정신이 깨끗한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가르쳐야 할 개념들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저는 임무를 받고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는 총관리 역원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떠오르리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 경전을 사용함

**페리 장로:** 가르칠 때 경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패커 회장:** 저는 항상 경전에 의지해 왔습니다. 복음이라는 주제 외에도 가장 훌륭한 가르침과 가르치는 방법의 예, 교수법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바로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전을 지참하지 않고 단상이나 반원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저는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페리 장로:** 회장님은 항상 경전을 들고 다니십니다. 제가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늘 회장님은 경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번은 그 경전이 물에 젖게 된 경위와,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오히려 경전을 더 빨리 넘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패커 회장:** 제가 바깥 잔디밭에서 경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부르는 바람에 작은 탁자 위에 경전을 펼쳐 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났지요. 노인네들 습성이 그렇듯이 그만 그 사실을 잊어버렸지 뭐니까. 그런데 잔디에 자동으로 물로 뿌리는 살수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오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50년 동안 표시를 해 온 내 경전이 못쓰게 됐군.” 하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페이지를 넘기기가 더 쉽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새 경전을 사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비를 맞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리 장로:**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경전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전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말하지요. 회장님은 가르칠 때 경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패커 회장:**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저는 몰몬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십대 청소년이었던 그때, 저는 몰몬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신 부모에게서 태어나”(니파이전서 1:1) 그리고 그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읽었으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읽는 일은 재미있었으며, 그렇게 계속 읽다가 구약의 선지자의 언어로 된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 장에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다시 몰몬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몰몬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러나 매번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 장에 이르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장들까지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십대인 저로서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봐야 했지만, 계속 책장을 넘기면서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앨머서까지만 가면 그 뒤로는 쉽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읽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읽는 것이 아니라 몰몬경, 신약전서,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여름이 되면,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경전을 읽는 일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 가르치는 은사를 위해 기도함

**페리 장로:** 새로운 개종자들이 교사로 처음 부름 받을 때, 어떠한 권고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패커 회장:** 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몰몬경에는 은사와 여러 은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모로나이서 10:8~10 참조) 오래 전에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은사야.” 저는 경전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까닭—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계속 간구하고 찾으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마태복음 7:7; 제3니파이 27:29 참조)라고, 그리고 그 은사를 얻어야 하고 얻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 영을 구함

**페리 장로:** 교사들이 가르칠 때 영을 확실히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패커 회장:** 합당한 생활을 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일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명을 지키고 해야 할 일과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능력과 영감을 구하기 위해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8) “받으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이노스서 1:15) 선한 것이라면(모로나이서 7:26 참조)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이 성구를 덧붙입니다. 복음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봉사의 성역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연로한 사람일 수도,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젊은이일 수도, 자녀들로 인해 일상이 바쁜 어머니일 수도, 일 때문에 바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가르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저는 그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항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 그물과 같으니”(마태복음 13:47) 그것은 사실 그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마태복음 13:45)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마태복음 13:3~8 참조) 그것은 그들이 쉽게 연상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나쁜 땅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듣고 한 달쯤 지나서 실제로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그가 그의 손에 있는 씨앗을 보며 그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에 지나지 않아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비유와 이야기 또는 예를 활용할 경우, 그것들은 반원들이 교실을

나선 후에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분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은 때로 아주 엄격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항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신성하고도 거룩한 부름입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은 결코 혼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엘마서에는 주님이 모든 나라와 방언의 민족에게 교사를 허락하신다(엘마서 29:8 참조)는 말씀이 있으며,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교리와 성약 88:7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지만 또한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그룹이나 반원들을 가르칠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 가르치는 책임

**페리 장로:** 가르침은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핵심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패커 회장:** 모든 사람은 교사입니다. 지도자는 교사이며,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도 교사입니다. 조연자도 교사이며 부모도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르치는 원리를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교리와 성약 1:20)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수를 받는 성직자가 없다는 것, 모든 형제들이 신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모든 자매가 교회에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가르침은 우리가 행하는 바의 중심이 됩니다.

**페리 장로:** 회장님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패커 회장:** 가정에서는 더 친밀하고 더 쉽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더 잘 가르칠 수 있으며, 부모는 모범으로 가르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힘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를 물으면 모든



여러분은 합당하게 생활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여러분은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그 일을 해야 할지 아는 능력과 영감을 얻기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유가 모르지만 단지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그들은 자녀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종을 가르칩니다. 가정에는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강력한 사랑의 유대가 있습니다.

### 영으로 가르침

**페리 장로:** 회장님, 학생들은 교사에게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패커 회장:** 첫째, 그들은 교사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사는 그들의 수준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일지라도 학생들이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에 관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일상 생활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항상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십대들조차, 특히 십대들은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배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전해야 할 말을 빠짐 없이 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한 준비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표를 여유있게 하는 것과, 그들이 질문과 발표를 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교사는 영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합니다.

성신은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했던 몇 가지 작은 경험이나 우리가 갔었던 장소, 혹은 우리가 보았던 무엇인가가 늘 있습니다. 경전은 그 모든 것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규칙과 규정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이따금씩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꽤 많은 가르침이 너무나 딱딱합니다. 그것은 강의입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하는 강의에 그다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이나 대회에서는 반응을 보입니다. 가르침은 주고 받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과 시간에 쉽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교회사 교사로서 그에 관한 모든 역사를 공부했고, 1844년 6월 27일 오후 5시에 카테지 감옥에서 선지자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선지자가 몇 시에 어디서 총에 맞았느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교재에서 읽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순간을 맞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묻는 순간 그들은 할 말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공과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수줍어하는 학생이라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을 다루고 공과를 조정하고 관리할 방법이 생깁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공과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장소에서 돌아올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영을 지녀야 합니다. ■



#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높은 우선 순위

오늘 우리의 주제에 대해 영감에 찬 말씀을 해 주신 패커 회장님과 페리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모임 마지막 순서인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이 거의 모든 시간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할애하는 것을 보면 제일회장단이 이 주제의 우선 순위를 얼마나 높이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의 성공 여부는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과 이해하는 것, 그런 다음 약속된 행복과 구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따라 생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바로 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이 구절에서 구주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복음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할 일이 많지만—우리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길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느 하나도 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헝클리 회장은 성도들, 특히 청소년과 새로운 개종자들이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라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친구,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모로나이서 6:4; 또한 고든 비 헝클리, 대회 보고, 1997년 4월, 66쪽; 또는 리아호나, 1997년 5월호, 47쪽 참조)

가정과 교회에서의 영감 받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중요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나 있으며, 그러한 기회 중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선교사,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세미나리 교사와 종교 교육원 교사들을 비롯한 공과 교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교사가 아닌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홀런드 장로님의 발표 자료에서 학습자 또는 교사로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선택하십시오.

홀런드 장로님 반의 토론은 다섯 가지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원리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숙고한 다음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홀런드 장로님은 배움과 가르침에 관한 말씀 외에 또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패커 회장은 페리 장로님과 대화하시면서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회장은 “모든 사람은 교사”—지도자, 제자, 부모, 그리고 상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적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다양한 기적의 축복, 영적인 은사,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고린도전서 12:28 참조)

1916년 연차 대회 당시 젊은 사도였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교사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신성한 본질을 강조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책임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은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16년 10월, 57쪽) 이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교회의 훌륭한 교사 지침서인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이란 책의 제목은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초등회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어린이들은 부모와 교사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찬송가, 187장)

그것이 이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맡긴 공통된 임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누어 져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가르치기 위한 준비

여러분은 이 탁자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며 제가 공과를 준비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낮익은 모습입니까? 오늘의 공과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반을 위한 것이든지 공과를 준비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가르칠 공과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을 일찍 시작하시라고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요일에 공과를 가르쳐야 한다면 저는 그 전 일요일에 공과 내용을 읽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영감을 구하며, 생각하고, 읽고, 실생활에 적용해 볼 시간을 갖게 되며,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전할 메시지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줄



가정과 교회에서 영감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중요한 요소를 채워 줍니다.



맨 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위: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교회 회원 몇몇이 이 시범 공과를 위해 구성된 반에 초대되었다. 그들이 말한 의견 중 일부가 이어지는 페이지의 상자 속에 있다.

것입니다. 초반에 공과 계획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그 주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영감들이 떠오를 것이며, 공과 준비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활용하고 싶은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또한 교회의 거의 모든 교사들이 겪게 되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유혹을 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자료를 다루려는 유혹,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다루거나 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많은 것을 전하려 하는 유혹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공과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제가 여태껏 보아온 모든 공과 개요에는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 훌륭한 개념을 골라서

유익한 토론을 전개하여 효과적으로 배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재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가르치려 애쓰는 것보다 좋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이 자료들은 오늘 저에게 할당된 공과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분량보다 서너 배나 많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선택을 해야 했고, 일부 자료는 다음에 쓰려고 남겨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교실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려면 절대로 서두르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두릅니다. 우리는 마치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경주에서 기록을 세우려는 듯 주님의 영을 지나쳐 세차게 달려나갑니다.

### 가르침 시범

이제 팩커 회장님과 페리 장로님의 훌륭한 토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르치고 배우는 위대한 임무에서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요소들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세계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있는 교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서로 바람직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 방식을 보이기 위해 이곳 교회 본부 건물의 한 교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공과 시간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했으며—저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학생들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공과를 위한 개회 기도를 했으므로, 주님의 영이 우리의 가르치는 경험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교실은 보통 크기의 교실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더 큰 교실에서, 또 일부는 더 작은 교실에서 가르치겠지만 교실의 크기가 어떻든지 가르침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같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정말 우수하고 뛰어난 열다섯 명의 반원들이 있으며, 전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열여섯 번째 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떠오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상관 없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에 관한 영의 속삭임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르칠 수 있음**

페리 장로님은 대화 도중에 패커 회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교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새로 부름 받은 교사에게 어떤 것을 권고하시겠습니까? 그 교사가 용기를 내어 부름을 받아들이고 완수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형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홀런드 장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패커 회장님이 페리 형제님의 질문에 하신 대답입니다.

패커 회장님은 경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약속이 담긴 구절들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늘 경전 구절에서 특별한 확신을 얻습니다. 떠오르는 성구가 있습니까?

**제이 이 젠슨 장로:** 모로나이서 10장 17절입니다.

**홀런드 장로:** 물론경의 마지막 장인 모로나이서 10장은 은사에 관해 잘 설명해 줍니다. 젠슨 형제님, 그 구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젠슨 장로:** “이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느니라.”

**홀런드 장로:** 굉장한 말씀입니다.

**젠슨 장로:**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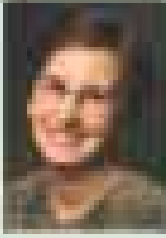
**홀런드 장로:** 네, 예외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 구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다지만 나는 아니야, 모두가 가르칠 수 있더라도 난 못해, 혹은 나 빼고 다 지도자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 은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약간의 경고가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젠슨 형제님, 8절의 맨 처음 두 문장을 읽어 주세요.

**젠슨 장로:**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고, 그것들이 같은 하나님에게서 오이니라.”(모로나이서 10:8)

**홀런드 장로:** 저는 우리가 은사를 “부인”하려는 유혹을 조금씩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곤







“제가 우루과이 콜로니아 수이자에 있는 지부의 회원으로 있었을 때 저의 첫 번째 부름은 초등학교 회장이었으며 그때 제

나이는 열세 살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이었고, 또한 교사였습니다. 제 임무는 아이들에게 공과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부름에 성별 되었을 때 교재를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교재를 펼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공과를 가르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음 토요일에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영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델리아 로손 자매

합니다. 부름이 오거나 공과를 가르쳐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상당히 소심해지기 마련이고,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할 수 없어. 그래, 난 아니라고 말할 거야. 은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거야, 그런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해야지. 어떤 면에서, 이 부름의 정당성을 부인해야겠다.” 어느 정도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모로나이는 이런 우리에게 “부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지.”

###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저는 구주께서 직접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모든 경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반복되는 경전의 약속이요, 선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전에 이 약속이 몇 가지 형태로 백 번이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나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한두 번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20, 40, 60, 또는 80번이나 반복되는 것이라면 주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비키 에프 마쭈리 자매:** 제 생각에는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내용의 성구인 것 같습니다.

**홀랜드 장로:** 그렇습니다. 마쭈리 자매님, 그 말씀을 하셨으니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 약속이 나타나 있는 수많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마쭈리 자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홀랜드 장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약속이 분명하게 선언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구한다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캐시 휴즈 자매님에게 오늘 우리의 서기가 되어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우리의 제목은 패커 회장님과 페리 장로님의 대화 주제로 하겠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휴즈 자매님, 제목을 칠판 위쪽에 써 주시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추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방금 마쭈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영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사를 구할 때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요건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블류 로프 카 장로:** 그 약속의 결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아예 적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하면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하는 것의 결과는 찾는다는 것이지요. 두드리면, 열리게 됩니다.

**홀랜드 장로:** 휴즈 자매님, 우리가 받게 될 것들을 칠판에 적어 봅시다.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오린 하웰 형제:** 그 구절과 함께 저는 누가복음 12장 12절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홀랜드 장로:** 그 성구는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안내하는군요. 우리는 언제나 선교사들에게 그 구절을 일러 줍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준비되어 있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각에 해야 할 말을 알려 주실 것이라 약속하면서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구하고 정해진 때에 받는 것에 관하여 훌륭하고, 명료하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오린 형제님, 멋진 구절입니다.

**태무 스미스 자매:** 개종자인 저는 개척자들의 후손들이 있는 반을 가르치라는 부탁을 받고서 압도된 느낌이 드는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저에게 영은 어떠한 것을 말하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라도 그러한 것들을 말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기꺼이 따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홀랜드 장로:** 정말 좋은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를 토론하면서 그 성구가 인용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미스 자매님. 그 구절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도와야 했던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입니다. “네게 주어지리니 걱정하지 말라”는 훌륭한 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제를 가르치실 때 이 성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성구들이 참 많습니다.

### 경전에서 가르침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우리 대부분은 가르치는 부름을 받을 때 그 임무의 중대함에 압도당하여 스스로를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자료들을 연구하고 경전을 찾으며 영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과정 내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홀랜드 장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느낍니다. 가르쳐 본 적이 있는 모든 교사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좋은

교육자료를 제공하려 교회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혼자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없는 것을 발명해 내라는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자료들이 있으므로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것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과 교재는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패커 회장님은 페리 장로님과 대화하시면서 자신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이든지 교실에서 가르칠 때이든지 “항상 [이것]에 의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 없이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줄리 비 백 자매:** 경전입니다.

**홀랜드 장로:** 경전, 맞습니다. 휴즈 자매님, 2번에 “경전으로 가르친다”라고 적어 주시겠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우리에게 경전을 사용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나 성인반, 청소년들, 가정과 교회 등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부름받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복음의 정수인 경전, 그 자체입니다. 엘마서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경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구절보다도 이 역할에 관해 잘 알려 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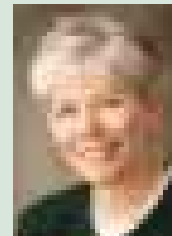
엘마는 매우 중대하고 어려웠던 선교 사업, 즉 조램인들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코리호어라는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르치고 간증하는 이 어려운 선교 사업에 효과적인 방법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와다 형제님, 엘마서 31장 5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타카시 와다 형제:**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참으로 그것은 같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그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

**홀랜드 장로:**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구를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어떤 성구는 거듭해서 읽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저는 그 일요일 아침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케냐의 아티 리버에 있었을 때 한 청년이 경전만을 사용하며 성찬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척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열다섯 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두가 이 청년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한 말씀과 간증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캐슬린 에이치 휴즈 자매



우리가 부름을 받고 가르쳐야 할 것은 복음의 실체인 경전 바로 그 자체입니다.

성구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전파기”— 말씀의 힘이—“백성들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경 역사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칼이 있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그것은 “칼이나” “다른 어떠한 것”, 즉 다른 모든 전쟁터와 분쟁과 어려움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으며 “그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능력은 다른 말로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어떤 여인이 그리스도께 다가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이로다”(누가복음 8:46)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어 원전의 신약전서에는 그것이 권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마가 말한 대로 강력한 영향을 가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와다 형제:** 저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양육받기 위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 곧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리로 올라왔도다.” 저는 공과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다가와서 “제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제게 필요한 공과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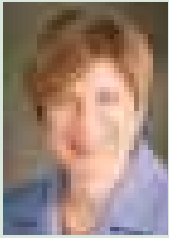
**홀런드 장로:** 훌륭한 지적에 감사합니다, 와다 형제님.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을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것이 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언과 영의 음성과 간증을 듣고 확신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오고 이런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기가 닥치고 진정한 치유가 필요할 때,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기 위해 옵니다.

**마쭈모리 자매:**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경전을 읽지 않고, 자기 경전을 가져 오지 않으며, 경전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어렵지요.

**홀런드 장로:** 맞습니다. 여기 경험 많은 초등학교 교사가 우리가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과 우리가 그들을 조금씩 발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어린이들은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약간의 주의를 주셨습니다. 마쭈모리 자매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퀴스트 형제:** 그것은 청남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이해하려면 니파이의 말처럼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은 제가 여섯 살 난 손녀딸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가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길 ‘글쎄, 고작 여섯 살인데. 정말 경전에서 강한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니파이전서 1장을 펴 보자꾸나.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있거나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찾으면 밑줄을 그어 보렴. 그리고 그에 대해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 볼 수 있단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니파이전서 1:1)라는 구절을 읽기 시작했는데, 손녀딸이 읽기를 멈추고 ‘제게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첫 줄부터 이해했던 것입니다. 손녀는 그 성구에 표시를 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물문경을 끝까지 읽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처음 물문경 읽는 것을 시도하고, 첫 구절을 읽은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줄리 비 백 자매

그들은 적용을 해야 합니다.

**홀런드 장로:** 그들은 자신을 경전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니파이전서 19:23 참조)

**달퀴스트 형제:** 그들은 경전을 생생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홀런드 장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경험, 일부는 가정에서, 일부는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청년 청년들이 시간을 두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우리는 조급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젠슨 장로:** 지금까지 우리의 토론은 네 권의 표준경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경전이 있습니다.

**홀런드 장로:** 그렇습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젠슨 장로:** 우리에게는 훌륭한 교재들이 있으며, 잡지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홀런드 장로:** 분명히 우리에게는 훌륭한 교재가 있고,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과 반 년마다 열리는 연차 대회 말씀, 그리고 교회의 다른 출판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풍족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야 합니다.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그 말씀을 들으니 질문이 생겼습니다. 옥스 장로님이 다른 모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사들이 교재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공과를 진행하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침서와 교재가 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임을 이해시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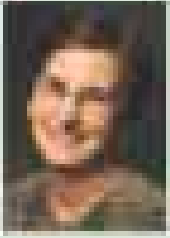
수 있을까요?

**홀런드 장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젠슨 장로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훌륭한 견해와 통찰력—말씀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말씀으로 인한 치유와 도움과 빛—을 생각할 때 패커 회장님이 몇 년 전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유타의 어느 겨울 혹한의 날씨에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사슴 떼들이 계속 아래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슴들이 자신의 자연 서식지에서 벗어났을 때 그 중 몇 마리가 울타리와 주위 환경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선의와 책임감을 느낀 능력있는 기관들이 그 사슴들에게 먹이를 주며 겨울을 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건초를 실어와 도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일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후에 엄청난 수의 사슴들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슴들을 처리했던 사람들은 죽은 사슴들의 뱃속에 건초가 가득 들어있었으나, 그들은 굶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슴들은 먹이를 공급받았지만 영양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가르치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양육입니다.

### 영으로 가르침

휴즈 자매님, 3번을 “영에 의해, 영으로 가르친다”라고 써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진짜 교사이기에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은  
종종 영과 교통하여  
영으로 가르치고,  
경전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메시지를 학생들의 필요 사항에  
맞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  
학생들이 제게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말하면 저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언제 그랬지?’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학생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학생들 본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전과  
영을 통해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델리아 로슨 자매

앞서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영혼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는 느낌이나 속삭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이며, 그가 진짜  
교사입니다.

교리와 성약 43편 16절에는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이며  
연장입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로  
말할지라도 교사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반원들끼리  
서로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 교육이  
되므로, 이제 오린  
하웰 형제님과

함께 잠시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린, 언제 교회에 들어오셨나요?

**하웰 형제:** 1996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홀런드 장로:** 어디서 개종하셨나요,  
하웰 형제님?

**하웰 형제:** 보스니아입니다.

**홀런드 장로:** 하웰 형제님, 그때  
보스니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하웰 형제:** 당시 군에 있었습니다.

**홀런드 장로:** 보스니아의 어느 지역에서  
침례 받으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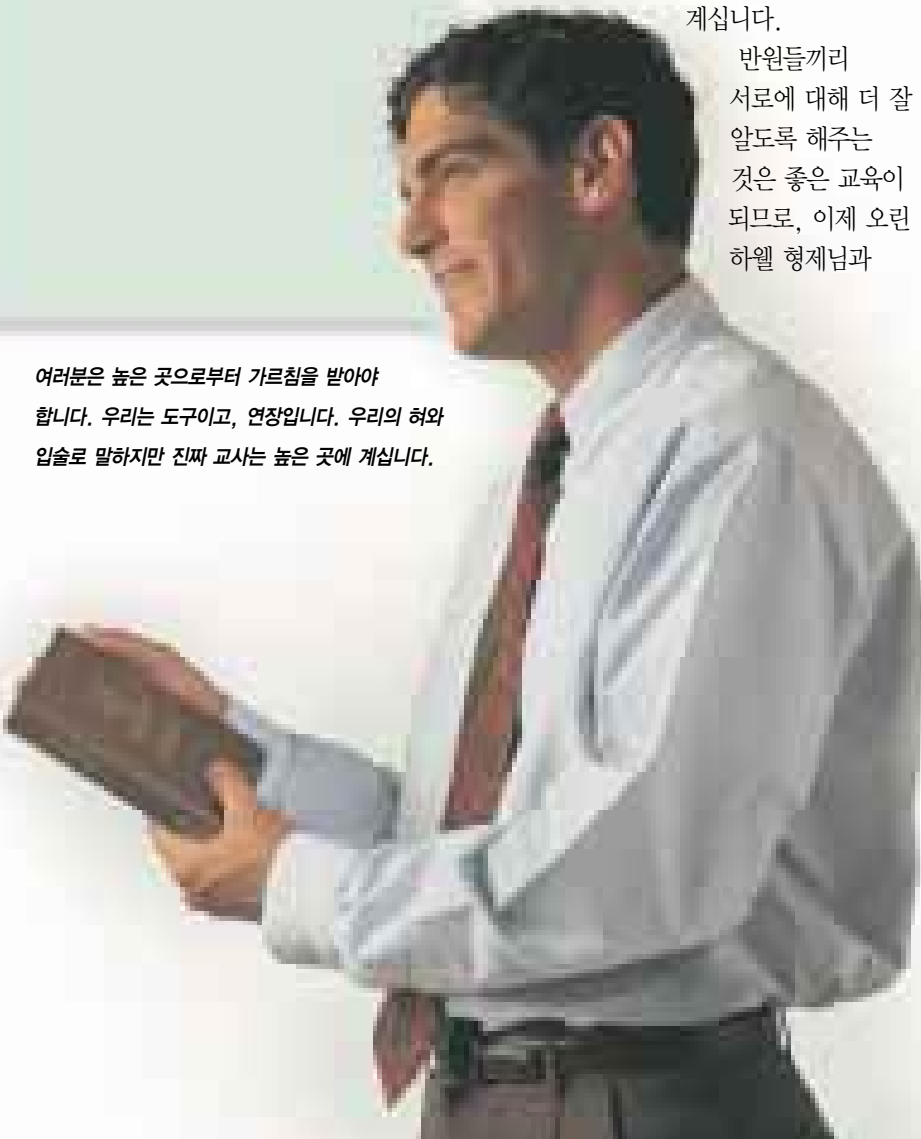
**하웰 형제:** 투즐라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러시아 술집을 개조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우리는 탱크 덮개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예배당으로 가져와서  
뒤집은 다음에 침례탕으로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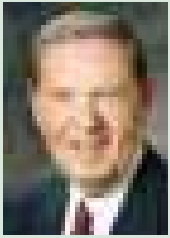
**홀런드 장로:** 이 훌륭한 젊은이는 군에  
있는 동안 후기 성도 동료들의 생활에  
감동을 받아 복음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였으며,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개조된 예배당에서  
탱크의 엔진 덮개를 대야 모양으로 뒤집어  
놓고 물을 채웠습니다. 오린이 물을  
채웠지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린, 그때 누가 오린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했습니까?

**하웰 형제:** 홀런드 장로님,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홀런드 장로:** 저는 1996년 여름에 오린  
하웰 형제님을 보스니아 투즐라에 있는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는 특권을  
누렸었습니다.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우리는 목숨을 위해 분투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훌륭한 젊은이는  
이곳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교회를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대제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반의 매우 특별한 반원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곳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구이고, 연장입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로 말하지만 진짜 교사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갖는  
확신은 주님의  
정직한 속삭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도구이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반 또한  
그분의 반이며, 이 교회와 이 사람들  
모두가 그분의 것이라고 속삭이십니다.  
이러한 속삭임을 들을 때, 그대로 그  
영에 정직하게 응답하십시오. 대개  
교과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해 동안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전체적인  
틀과 방향, 과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이를 제쳐 두고  
주님의 속삭임에 응답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야. 지금이 가르칠  
때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항상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부모들은 가르침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고, 그런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개인적인 역사를 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린. 이러한 소개는 반원들이 서로를 더  
잘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하웰 형제님이 우리와 함께  
“영으로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전개시켜  
보게 하겠습니다. 50편을 펴보십시오.  
50편에는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구절들 중 일부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하웰 형제님, 교리와  
성약 50편 1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웰 형제:** “그런즉 나 주는 이 질문을  
너희에게 하노니—너희는 어떠한 것에  
성임되었느냐?”

**홀런드 장로:**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 강조의 방향을 조금  
옮겨서 성임이라는 단어를 부름  
받음이라는 단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성임이란 신권 용어이므로, 우리는  
가르치라는 일반적인 부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런즉 나  
주는 이 질문을 너희에게 하노니—너희는  
어떠한 것에 [부름을 받았느냐]?”

이제 하웰 형제님, 14절에 나오는  
주님의 대답을 읽어주십시오.

**하웰 형제:** “영 곧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임되었느니라.”

**홀런드 장로:** 이 구절은 우리가 앞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바를 담고 있으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진짜 교사는 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인 성신, 즉  
하늘의 지도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 곧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영의 동반 없이, 또는  
영을 의식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려 한다면 어떨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가르침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세미나와 종교  
교육원의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원이  
선택의지를 행사하도록 하면 성신을 통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원이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맥키 자매님, 18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마릿자 맥키 자매:**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홀런드 장로:**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맥키 자매:**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맥키 자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앉아서 책과 교재를 공부하고, 공과 개요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준비는 하되 준비한 것을 제쳐두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홀런드 장로:**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달퀴스트 형제:** 영의 속삭임은 우리가 서서 자신의 노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영의 속삭임은 준비과정에서 시작되고 공과 계획을 짜는 동안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화와 많이 비슷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연차 대화는 아주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홀런드 장로:**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덧붙여 봅시다.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 자매:** 저는 준비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 주에 반원 중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공과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기 위해, 또는 다른 경전 구절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되는 것과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홀런드 장로:** 훌륭한 질문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카 장로:** 제 생각에 그 해답은 준비와 쌓아두기를 넘어서서 계획한 공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배경으로 둔 채 영의 속삭임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홀런드 장로:** 그저 교실에 들어가서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영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준비한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공과 중에 들려오는 영의 속삭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반대의 극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백 자매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두 요소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학습의 방향을 유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했으나, 영의 인도를 받도록 마음을 열었으며,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공과를 전달하는 그 순간에 진행 방향을 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노우 장로:** 모든 반원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영의 느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임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훌륭한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 교사가 “아주 좋은 토론입니다만 이 공과를 마무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홀런드 장로:** 네, 그렇지요.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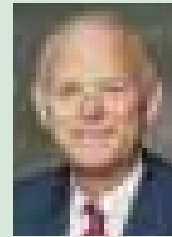
**스노우 장로:** 때로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런드 장로:** 네,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민감하여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늘 제게 실로 흥미로우면서도 다소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사는 자신이 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칠 때 그 부분에 대해 항상 자신이 있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홀런드 장로:** 이것에 대해 답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영에 의해 가르치고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표시로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두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구도자를 가르치면서 저는 이들의 훌륭한 모범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다섯 번째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인인 한 선교사는 독일어로 가르쳤는데, 그는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제 갓 선교사로 나왔고, 다섯 번째 토론은 처음으로 가르쳐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었죠. 그는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선교사는 미리 메모해 온 것에 다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앉아서 그 둘을 지켜보았을 때, 영이 그 두 선교사 모두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르치는 수준이 서로 다른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지 영은 속삭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형제

아니면 그냥 신앙으로 가르치면서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항상 바라는 것입니까?

**젠스 장로:** 저도 같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리와 성약 50편 21절과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대로 받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음은 어쩐이냐?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홀런드 장로:** 아마 잠시 동안의 기쁨이겠지요, 캐시. 마음에 기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한 가지 표시입니다.

**젠스 장로:** 교사가 혼자서 모든 말을 다 하고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경전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인용문이 있는데, 오늘 토론을 하면서 그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트 장로님이 교회 교육 기구 훈련 모임에서 가르치신 것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반원들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장려하십시오. 반원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성신이 가르치시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원들이 여러분이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이 진리를 말로 표현할 때, 그들은 영혼으로 확신을 받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간증이 강화됩니다.”(리처드 지 스코트, 진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 종사자들에게 전한 말씀, 2005년 2월 4일], 3쪽)

**홀런드 장로:** 훌륭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이전에 매리온 지 톰니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영의 영향을 받아 말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몰랐던 무엇인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사인데 갑자기 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그것을 전에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기쁨, 새로운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이 영에 의해 가르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몇 가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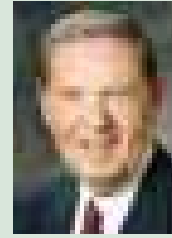
대부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는 오늘의 모임이나 교회에서의 다른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백 가지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코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도구로서 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영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 교사라는 신성한 부름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후 개인적인 계시의 기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일과 교사가 되는 것에 관한 참으로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움의 책임

4번: “배우는 자가 배움의 책임을 지도록 돕는다.”

교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누군가가 몸짓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가르칠 테면 한번 해 봐요. 난 이 의자에서



“40분 동안의 공과가 끝나고 학생이 문밖으로 걸어나가며 “흠, 공과 괜찮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공과가 학생이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난다면 궁극적인 가르침, 즉 가르침이 계속 적용되는 것에서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 그에 대해 오늘 오후에, 내일과 다음 주, 다음 달에 생각해 볼거야.’라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자극을 주고, 영적으로 매우 달콤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공과는 생명력을 얻고 새로운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교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공연과 같은 공과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45분 동안 즐거워하며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렇게 재미있는 공과를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하지만 그들은 그 주 동안에 또는 그 달 동안에 그들이 배운 교리의 주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고개를 숙이고 내 신발이나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쳐다볼 때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나쁜 경우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배울 준비가 안 된 것같은 사람들



앞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울 준비를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빅 자매:** 가끔 저는 제가 할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즉 배우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질문을 이끌어낼수록 그들의 학습 참여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읽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는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과연 알 수는 있을까? 내가 이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모를 텐데.” 그는 배우려는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이 교사인 저에게는 어려운 점입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보다 반원들이 질문을 하도록 도와서 성신이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홀런드 장로:** 제가 좋아하는 교회 서적 중에 제 오랜 친구이자 브리검 영 대학교 교수인 테니스 라스무센이 쓴 주님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님께서 항상 어떻게 질문으로 가르치시시기를 보여 주는 표본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주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9)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이 알고자 하신 것은 자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아담이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분이 질문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49)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구주의 삶은 질문을

함으로써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계시가—제가 헤아려 보지 않아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교리와 성약의 아주 많은 계시가 선지자나 다른 형제들이 주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왔습니다.

**마쭈모리 자매:**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패커 회장님이 자신은 배우기를 원했었다고 하셨을 때에도 그랬고,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배우는 사람이 배움의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생각이 앞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홀런드 장로:**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여러분은 교사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교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발달되고 좀더 높은 수준의

개념인 것을 보니 네 번째 개념에 대해 얘기해도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마쭈모리 자매님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어린이, 세미나리 학생, 14세의 교사나 장미반 청년—때때로 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듯 행동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돕습니까?

**와다 형제:** 때때로 교실 안에서 바로 학습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교실 밖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 배우고 있었을 때,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면 일주일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는 “그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게 한다면 그들은 배움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학습이 꼭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홀런드 장로:** 좋은 지적입니다. 주님의 영이 형제님에게 1주일 혹은 그 이상 동안 작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교회 구도자들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떠난 후, 그리고 그들이 다음 과정을 위해 다시 오기 전까지 영이 구도자들에게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와다 자매:** 때때로 어린이들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준비한 많은 예나 경험, 시청각 자료들을 모두 활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따금 질문에 답해주느라 바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는 공과를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적어도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그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느끼도록 말이지요.

**홀런드 장로:** 좋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한 것보다 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어떤 어린이라도,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만일 와다 형제님이 한 주 후에도 여전히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한 가지의 것, 한 가지 아이디어,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훌륭한 공과 경험 못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머뭇거리릴 필요가 없습니다.

**카 장로:** 방금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어린이나 성인들이 질문을 하면 그보다 더 신나는 교실 분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홀런드 장로:** 누군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카 장로:** 그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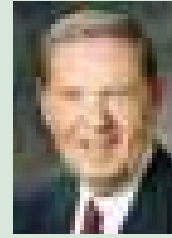
**홀런드 장로:** 반원이 아직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리고 아직 그것이 교사인 여러분의 짐인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브루스 밀러 형제:** 그냥 공과를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멈추고 영을 불러들일 무엇인가를 해야 할까요? 개회 찬송, 기도, 경전 나누기를 한 후에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냥 공과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멈추고 “자, 이곳에 어떻게 영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라고 말합니까?

**홀런드 장로:** 이것에 대해 답하실 분이 있습니까?

**스노우 장로:** 장기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첫 공과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때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영이 임재하며, 모든 반원이 공과에 참여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멈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나요? 변화가 보입니까?”

**홀런드 장로:** 초반에 휴즈 자매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이 질문은 밀러 형제님이 알고 싶어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반원들 앞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하튼 그것에 대해 그들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질문은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주님이 반원들을 사랑하신다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을 잃지 마십시오. 아주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받거나 화를 내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없다면 아직 그들을 가르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그들을 사랑한다면 내일은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만일 교사인 제가 학생인 여러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싶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펌프에 마중물을 조금 부을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할 일이라고는 그 흐름의 방향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사는 메릴 형제님이 대회에서 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내가 자료 센터로 가서 그 비디오 클립을 가져와야지. 반원들에게 메릴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훌륭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청각 보조 자료는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입니다. 그것은 공과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요리할 때 맛을 내고, 또는 맛을 진하게 하고, 입맛을 당기게 하고,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양념처럼 사용하십시오. 지도나 그림 또는 비디오 클립이나 칠판에 적은 요점 등은 가끔 좋은 공과와 훌륭한 공과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념만 있는 음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건대, 시청각 보조자료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교사의 대리인도 아니고, 교과 자료의 대체물도 아니며, 주님의 영의 대역도 아닙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청각 자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그것들은 필요할 때 사용하십시오.

**와다 자매:** 초등학교 반에 정말로 산만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어린이가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흰 옷을 입은 주님의 영이라고 상상해 보려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지는 그 형상이 비록 작더라도 배우기 위해 이 지상에 왔으며, 그 아이가 여기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홀런드 장로:** 정말 감사합니다. 참 훈훈한 말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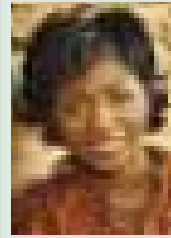
**하웰 형제:** 듣고 보니 때로는 교사가 배우는 자이고 배우는 자가 교사이군요.

**홀런드 장로:** 거의 항상 교사가 반원들보다 더 많이 배울 겁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즐거움 중 하나이지요.

#### 간증을 전함

결론을 짓겠습니다. 5번은 “간증한다” 한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교사가 교회나 집에서 공과를 마무리 해야 하는 방식, 즉



“제가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하던 시절에 저는 저의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잠옷을 입은 채 세미나리에 갔던 때도 있었고, 몇몇은 베개와 이불을 가지고 갔으며, 여자 아이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우리가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그 선생님을 통해 우리는 축복 받았습니 다.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지만 저는 세미나리 시간에 교사의 말에 두 귀를 기울여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하며,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영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공과에 귀기울일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무 스미스 자매



간증의 영으로 이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패커 회장님께서 청남반 주일학교 교사였던 윌리엄 이 베렛 형제님에 대해 해 주셨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연세 지긋한 덴마크인 형제님이 거친 청남반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습시다. 사실 그 형제님이 적임자로 보이는 않았습시다. 그분은 언어가 서툴렀고 덴마크 사투리도 심했으며, 큰 농부의 손을 가진 연세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어리고 소란스러운 열다섯 살 소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동원해 생각해 봐도 그다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시다. 그러나 윌리엄 이 베렛 형제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이 말씀은 패커 형제님이 종종 인용하습시다.—“그것은 어쨌든 이분이 그 소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 모든 장애물과 한계를 뛰어넘어 이 산만한 열다섯 살짜리 소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시다. 베렛 형제님의 간증은 바로 “우리는 그분의 신앙의 불꽃으로 손을 녹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그런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과는 가장 멋진 공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법을 알고 있는) 시청각 자료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불꽃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며, 그들은 그것으로 손을 녹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고통스러운 실망을 겪어 왔습시다. 충실하고 재능있는 교사들이 훌륭한 공과를 한 후, 공과의 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종이 울리네요. 존스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끝입니다. 책을 덮는 일도, 1분이라도 눈을 마주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떠한 마무리의 말도, 요컨대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고 제가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논지를 충분히 입증하자면—공과 내용이 반원이나 교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저는 교실을 나서면서 “그분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군. 그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어떤 교리, 어떤 원리, 지도, 비디오 장면을 반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들이는 반면, 그 교리나 원리가 교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사야말로 반원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옆에서 함께 걸어야 하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감지하기 힘든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감지하기 힘든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성과나 허영을 피하십시오. 자신의 푹푹함을 보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하십시오. 잃어버린 지파들이나 세 명의 니파이인들이 어디 있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학생이 어디 있는가를 조금 더

걱정하십시오. 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굶주림과 때때로 다급한 영적인 필요 사항이 있거나 없는지 걱정하십시오.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간증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증을 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공과 시간 전체를 통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간증이 누군가의 영적인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다하여 말”한다고 말하십시오.(엘마서 5:43) 저는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 영혼의 힘을 다해 간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엘마가 그의 회중에게 했던 질문, 즉 “너희는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하고 반원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것은 다 참된 줄을 내가 스스로 아노라.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아노라.”(엘마서 5:45, 48)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압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서 설명한 대로 가르친다면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사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우리가 경전에서 가르치고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에 의해 가르친다면, 반원이 배움의 책임을 맡도록 돕는다면, 가르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반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이 자리에, 그리고 멀리 세계 전역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제게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삶입니다. 저의 소망이요, 안전이며, 구원을 위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제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 제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 이러한 느낌을 가진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최초의 가정의 밤에서, 집사 정원에서,

선교부에서, 그 외의 많은 곳에서 여러분 같은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제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든 저는 훌륭한 교사들에게 빛을 쬐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서 시작하여 그 동안 제 삶에 영향을 준 다른 모든 선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고 제일회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평의회와 정원회를 포함하여 다른 총관리 역원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같은 훌륭한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까지 저는 신세를 쬐었습니다.

저의 간증과 사랑을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경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잘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가르치는 은사

1. 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2. 경전에서 가르친다.
3. 영에 의해, 영으로 가르친다.
4. 배우는 자가 배움의 책임을 지도록 돕는다.
5. 간증한다.

# 위대한 교사들의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들 중 몇 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훌륭한 교수법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과 원리들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교사이며 최선의 능력을 다해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결코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몇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

저는 명예 총관리 역원 중 한 분이신 매리온 디 행스 장로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은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 그리고 교회 전반 어디에서든 가르치는 일에 탁월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교수법들을 활용하셨습니다.

한번은 행스 장로님이 한 선교부를 둘러보시며 특정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일일이 접견하셨습니다. 저는 인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고 행스 장로님과 선교부 회장은 공항으로 차를 타고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행스 장로님은 각 선교사를 만나서 접견하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이였다고 선교부 회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스 장로님은 선교사들을 접견하던 중 한 자매 선교사에게 “자매님의 선교 사업과 자매 선교사로 부름 받은 것에 관한 느낌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봐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 선교사는 자신의 겸손한 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고, 무엇보다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많은 희생을 기꺼이 해오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미 두 아들의 선교 사업을 뒷바라지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딸 아이의 숨겨진 소망에 관해

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 때 아버지는 딸에게 자신이 딸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대화하려고 밭으로 가서 팔거나 희생하거나, 아니면 빌리기 위해 담보로 쓸 소유물이 더 이상 없다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딸이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양파를 심으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파가 잘 자라지 못할 기후였고 그렇기에 양파를 재배하는 다른 농부들도 없었으며, 그 자신도 양파를 재배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주님과 씨름을 한 후에 그는 양파를 심으라는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씨앗을 구입했고, 이것을 땅에 심고, 키우며, 기도했습니다.

양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날씨가 잘 조절되었습니다. 그는 농작물을 팔아 은행과 정부, 그리고 주님께 빚을

몬슨 회장님의 말씀에 나오는 경험담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느꼈는가? 학생으로서, 또는 교사로서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에 나오는 예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각 경험에서 구주의 가르침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구주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숙고해 본다.





사진: 헬렌 크리스트마스

**우리의 소중한 파티 기금이 담긴 하얀 봉투가 우리 교사의 가냘픈 손에서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빈곤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값았으며, 나머지 돈을 은행에 딸의 이름으로 예금했는데, 이 돈은 선교 사업을 뒷바라지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행스 장로님은 선교부 회장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자매 선교사가 ‘행스 형제님, 저는 저의 필요 사항을 아시고, 제가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언제든지 그분의 지혜대로 도움을 주실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매님의 눈에 맺힌 눈물이나 음식,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느낌, 그 이야기와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행스 장로님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실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어린이, 청년 또는 청년, 세미나리나 종교 교육원의 학생들, 복음 교리반 성인들, 선교사들, 참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 아직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임”**

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주고 사랑해 주셨던, 정말 유능하고 영감에 찬 교사의 영향 아래 어린 소년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시 게르치입니다.

주일 학교 시간에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창조, 아담의 타락, 예수님의 속죄 희생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도마, 바울, 물론 그리스도까지도 소중한 손님으로 교실로 모셔왔습니다. 그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본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분이 슬픈 표정으로 한 반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렸을 때, 그때처럼 그분의 가르침이 힘있고 오랜 영향력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 아침에 빌리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빠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날 공과의 주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사도행전 20:35) 였습니다. 우리의 선생님께서는 공과를 중간쯤 하시다가 교재를 덮으시고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반 파티 기금에 돈이 얼마나 있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대공황 시절이었던 그 때 저희는 자랑스럽게도 “4달러 75센트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나직한 목소리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빌리 가족의 사정이 몹시 어렵게 되었고 슬픔에 잠겨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가족을 방문해서 여러분의 기금을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도시의 세 구역을 걸어 빌리의 집으로 들어가서 빌리와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던 그 작은 무리의 모습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없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파티 기금이 담긴 하얀 봉투가 우리 교사의 가냘픈 손에서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빈곤한 손으로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의 눈에 글썽했던 눈물을 저는 항상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깡충깡충 뛰면서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가벼웠고, 기쁨은 차고 넘쳤으며,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교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신성한 진리의 영원한 교훈을 그분의 소년소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말씀을 바꾸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사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누가복음 24:32)

루시 게르치 자매님은 학생 하나하나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주일에 빠지거나 자주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꼭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이나 그분이 가르치셨던 교훈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루시 자매님이 인생의 말년에 이르셨을 때, 제가 그분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사였던 오래 전 시절에 관해 우리는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반원들 각 사람에 관해 이야기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관심은 평생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 신앙개조

제 생애에 또 한 명의 영감에 찬 교사는 어마 불윙클 자매님으로, 우리 스테이크 초등학교 위원회의 일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신앙개조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개조를 그분 앞에서 성공적으로 암송할 때까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습니다. 제멋대로인 어린 소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견뎌냈고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평생 신앙개조를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내면서 저는 독일 민주 공화국으로 알려졌던 동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에서 신앙개조에 대한 저의 지식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방문할 때마다 저는 신앙개조 제12조, 즉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를 그곳 회원들에게 항상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철의 장막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임은 항상 그곳 공산정부의 감시를 받았습니 다. 1980년대 초에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정부 관리에게 인가를 구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그 지역 출신의 젊은 남녀들이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허가를 얻으려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장로님, 우리는 20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회원들에게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신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개조를 배우는 것의 가치에 대해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45년 전에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인쇄업계에서 샤먼 허멜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직장에서 집까지 그를 태워다 주면서 그가 어떻게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툼, 제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 재미있네요. 바로 이번 주에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으러 맨타이 성전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동부에 살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쇄회사에 다니려고 버스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올 작정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오는 버스 여행 내내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한 어린 소녀가 버스를 탔습니다. 초등학교 소녀였는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네바다 주 리노에 있는 이모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쪽으로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이번 주에 물론 주일학교를 방문해 보십시오’ 라는 옥외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어린 소녀에게 ‘유타에는 물론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맞아요, 아저씨’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도 물론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맞아요, 아저씨’ 라고 대답했습니다.”

샤먼 허멜 형제는 “물론은 무엇을 믿지?”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신앙개조 제1조를 암송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는 신앙개조 제2조를 알려 주었고 그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3조, 4조, 5조, 6조 등 나머지를 다 알려 주었고 그 모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신앙개조를 순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샤먼 허멜 형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리노에 도착하여 그 어린 소녀가 이모를 만나 품에 안기는 것을 지켜 보았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동안 내내 저는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도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전화번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교부 회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두 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의 자녀들 모두가 회원이 되는 데 한 초등학교 소녀가 신앙개조를 알고 있었던 것이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16)

바로 석 달 전에 허멜 가족은 딸 메리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왔습니다. 그들은 제 사무실에 들렀고, 우리는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섯 명의 딸 모두와 네 명의 사위들, 열두 명의 손자손녀들이 함께 왔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들이 하나같이 성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한 어린이가 신앙개조를 배워서 복음의 빛을 찾고 있던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능력과 용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항상 준비를 갖추”

저는 교리와 성약 88편에 나오는 주님의 다음 권고를 아주 좋아합니다. “또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교리와 성약

88:77~78)

수년 전에 제가 임무지명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남부 캘리포니아로 여행하고 있을 때, 한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제 옆의 빈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는 책의 제목을 힐끗 보았는데, 기이한 업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아, 물론이시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니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글쎄, 아가씨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회원이 쓴 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친구가 제게 이 책을 주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책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그래서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교회에 관해 더 이야기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15) 저는 지금이 제 간증을 전해야 할 때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기이한 업적의 출판을 위해 제가 리차드 장로를 도왔던 때가 정말 보람있는 시절이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훌륭한 분에 관해 몇 마디 했습니다. 그분께서 준비하신 것을 읽고 진리를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동안 교회에 관한 그녀의 질문에 답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그때 나는 그 질문들은 진리를 찾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수준

높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두 명의 자매 선교사가 그녀를 방문하도록 준비를 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 지부에 참석하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크의 어빈 지 데릭 회장에게 편지를 써서 그 정보를 전했습니다. 몇 달 후에 데릭 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슨 장로님, 이본느 라미레스라는 젊은 여성에 관한 일로 전화드리는데요. 그 젊은 여성은 비번 비행 승무원으로 지난 번에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장로님 곁에 앉았는데 장로님이 자기 곁에 앉은 것과 자기가 그 여행 중에 기이한 업적을 읽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장로님과 통화하여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화로 인해 제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너무 기뻐고, 멋진 통화를 했습니다.

### 맥케이 회장의 모범

위대한 교사의 한 예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인데, 바로 그분이 저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감성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친절했고, 그 태도는 인자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진리의 교사이셨습니다.

제가 총관리 역원이 되기 오래 전, 우리가 인쇄를 하고 있었던 한 책의 인쇄



**심부름을 하고 돌아온 후의 일요일 저녁 식사는 언제나 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정쇄를 검토하기 위해 그분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러한 특성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벽에 걸린 한 그림을 보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맥케이 회장님, 멋진 그림입니다. 유타 현즈빌에 있는 어릴 적 집을 그린 그림이지요?”

그분은 의자 뒤로 기대서더니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림에 관해 말해 줄 게 있네. 어느 가을 날, 한 친절할 여성이 나를 보러 와서는 액자에 넣어 벽에 걸기만 하면 되는 저 아름다운 그림을 내게 주었어. 그녀가 말했지. ‘맥케이 회장님, 회장님의 부모님 집인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여름을 다 보냈습니다.’” 그분은 선물을 받아들였고 그녀에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형제, 알고 있나. 그 귀여운 여성은 엉뚱한 집을 그렸다네. 그녀는 옆집을 그렸어! 나는 그녀에게 엉뚱한 집을 그렸다고 말할 마음이 없었다네.”

그러나 그분은 그때 이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몬슨 형제, 실은 그녀가 내게 올바른 집을 그려주었다네. 어린 소년일 적에 나는 부모님 집의 정문 현관에 있었던 침대에 누워 있곤 했는데, 내가 방충망이 쳐진 현관을 통해 본 광경은 바로 그녀가 그린 집이었다네. 그녀는 내게 올바른 집을 그려준 거지!”

####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에 관한 교훈**

인생에서 배운 가장 훌륭한 교훈들 몇 가지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부모님은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종 그러한 교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년 시절의 추억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요일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소위 아사 지경에 이른 것처럼 맴돌다가 쇠고기 구이 향기를 방안 가득히 풍기고 있는 식탁에 애타게 앉아 있었고, 그럴 즈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토미, 먹기 전에 내가 준비한 이 접시를 거리 아래에 있는 밥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오나라.”

저는 왜 우리가 먼저 먹고 나중에 음식 접시를 갖다 주지 않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재빨리 그분의 집으로 달려 내려가서 밥 할아버지가 문으로 오실 때까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음식 접시를 그분께 건네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전 주 일요일에 드린 접시를 아주 깨끗하게 닦아 제게 주시며, 함께 제 봉사에 대한 대가로 10센트를 주셨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매를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주름진 손으로 제 금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애야,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구나.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 주려무나.”

제가 심부름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그 일요일 저녁 식사가 항상 좀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머니의 부친이신 토마스 콘디 할아버지 또한 흥미로운 방법으로 제 인생에 출연하셨던 밥 할아버지와 관련하여 제게 강력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팔손이 넘은 연세의 할아버이신 밥 할아버지가 방을 임대해 살던 집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정문 현관에 있는 제 할아버지의 오래된 그네에 앉아



할아버지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 하나를 빼내시더니 그것을 밥 할아버지에게 건내셨습니다.

있었을 때, 밥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께 그분의 곤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애처로운 음성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콘디씨,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내겐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돈도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 그네만 댕깁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더니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졸라댈 때 특별한 즐거움을 주시려고 동전을 꺼내셨던 지갑이었습니다. 이번에 할아버지는 열쇠를 빼시더니 그것을 밥 할아버지께 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밥,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열쇠 열쇠네. 가져가서 거기로 짐을 옮기게. 원하는 만큼 오래 있어도 된다네. 임대료는 내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자네를 내쫓을 일은 없을 걸세.”

밥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뺨 아래로 흘러내리더니, 그분의 길고 하얀 턱수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 또한 젖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날 저의 할아버지의 키가 3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제 이름에 지니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제가 소년이었지만, 그 교훈은 제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은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저를 가르쳤던 사람들에게서 배웠던 교훈들 가운데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사람됨과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 완전한 모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완전한 교사, 곧 우리 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빕니다. 그분은 해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셨지만, 그분이 가르치셨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는 가르치는 원리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의 제자들을 교육하셨으며,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요한복음 21:22)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속주에 관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요한복음 3:2)라고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 각자에 대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친구들



# 치명적인 마카페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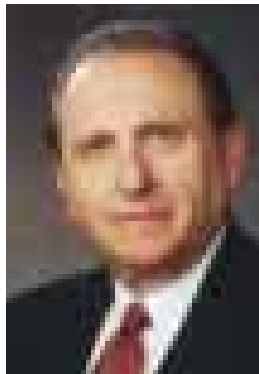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저**는 오래 전 임무 지명을 받고 아름다운 섬나라 통가에 갔었고, 그곳에서 교회 학교인 리아호나 고등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한 교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학생들이 교사의 말에 열중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사는 둥근 돌과 커다란 조가비로 만든 이상하게 생긴 낚시 미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미끼가 통가 말로 마카페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어 잡아용 미끼”를 의미했습니다.

교사는 통가의 어부들이 한 손으로 카누를 저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마카페케를 카누 옆으로 드리우고 암초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어는 그것을 먹이로 착각하고 바위 서식처에서 쥘쥘 나와 미끼를 붙잡습니다. 문어가 어찌나 짝 붙잡는지 또한 귀중한 먹이를 놓지 않으려는 본능이 어찌나 확고한지 어부들은 문어를 카누 안으로 훌쩍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교사가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듣는 청소년들에게 악마, 곧 사탄이 소위 마카페케라는 것을 만들어 그것으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쉽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올가미에 걸려는 마카페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단 붙잡히면 그 마카페케로부터 벗어나기란 너무 힘들고 때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매혹적인 미끼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부도덕과 외설물이라는 마카페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술을 포함하여 마약이라는 마카페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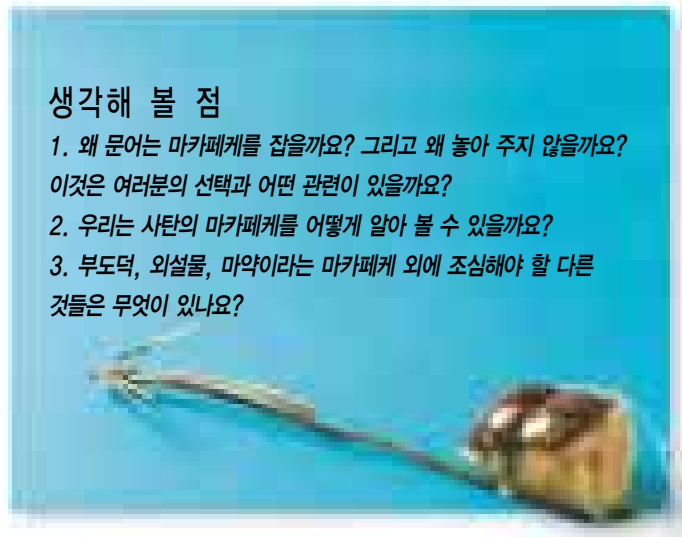
우리를 의의 길로부터 실족시키기 위해 악마가 우리 앞에 늘어놓은 다른 수많은 마카페케들도 있습니다. 교묘히 위장을 한 그 마카페케들은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을 잃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저항할 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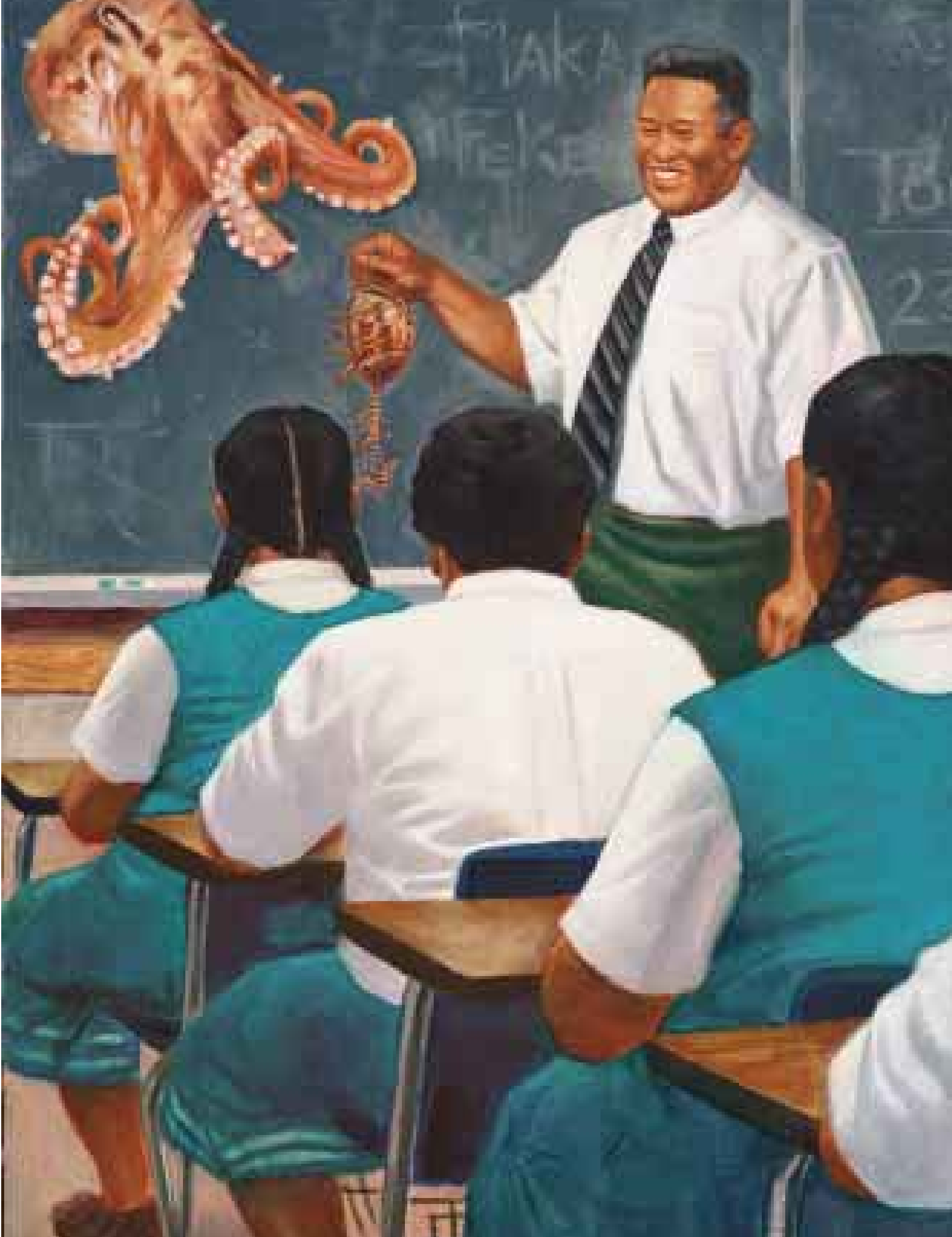
잠시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영혼 깊숙히 전하는 작고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파멸과 죽음을 피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

2006년 4월 연차대회 말씀에서

## 생각해 볼 점

1. 왜 문어는 마카페케를 잡을까요? 그리고 왜 놓아 주지 않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2. 우리는 사탄의 마카페케를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요?
3. 부도덕, 외설물, 마약이라는 마카페케 외에 조심해야 할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기억하다

기억하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으면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엘리자베스 리스



여러분은 사전에 나와있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님(1895~1985년)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도 기억하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킴볼 회장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ircles of Exaltation”, 1968년 6월 28일 브리검 영 대학교 종교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 8쪽)

물몬경의 선지자 힐라맨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니파이와 리하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름을 물려받은 위대한 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러 오실 것임을 기억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힐라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힐라맨서 5:12; 5~9절도 참조)

니파이와 리하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성찬 모임에서 성찬을 취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침례 성약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제사가 성찬을 축복할 때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교리와 성약 20:77)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침례 성약을 맺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자랍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 여러분은 일생 동안 그 성약을 지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계속 자랄 것입니다.

## 활동

친4쪽을 마분지에 붙이고 그림을 오려 낸다. 그림을 뒤집는다. 그림 두 개를 뒤집어서 한 쌍이면 함께 놓아 두고 다른 그림을 뒤집는다. 한 쌍이 아니면 다시 뒤집어 놓고 다음 사람에게 그림 두 개를 뒤집게 한다. 각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모든 그림과 기억하더라는 단어가 한 쌍이 될 때까지 놀이를 계속한다.

##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언

1. 종이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각각 적어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린이들에게 임의대로 낱말을 읽게 하고 그 성구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묻는다. 물, 성령, 들어가다와 같은 주요 낱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이 그 성구가 침례에 관한 것임을 정확하게 알아맞힐 때 어떤 구절인지 가르쳐 주어 단어들을 순서대로 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주 전에 몇 명의 어린이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또는 부모님이 왜 그 이름을 선택했는지를 간단히 적어 가져오게 한다. 그들이 알아 온 것을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선교사들은 주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명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것과 같은 예를 준비한다.

2. 초등학교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 첫 그룹에게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 누구인지 말해 주는 성구를 찾게 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중 넷째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성구를 찾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실마리가 필요하다면 신앙 개조가 값진 진주의 한 부분임을 상기시켜 준다. 신앙 개조 제 1조와 4조를 복습한다. 어린이들에게 성령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나이가 좀 많은 어린이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성신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말한다(보혜사). 성신이 어떻게 보혜사가 되는지 설명한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모범의 힘**



스펜서는 선교사로 봉사할 결심을 한 후 여름 동안 돈을 벌기 위해 낙농장으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일이 힘들어. 손에는 피가 나곤 해. 하지만 나는 일을 피하진 않아.



낙농장에서 스펜서는 한 귀환 선교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애리조나의 언덕길에서 긴 산책을 하면서 둘은 선교 사업과 복음 주제들을 토론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드리자.

여기서?

기도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회원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낙농장 일꾼 두 명이 날 공격했어. 네가 날 찾아서 다행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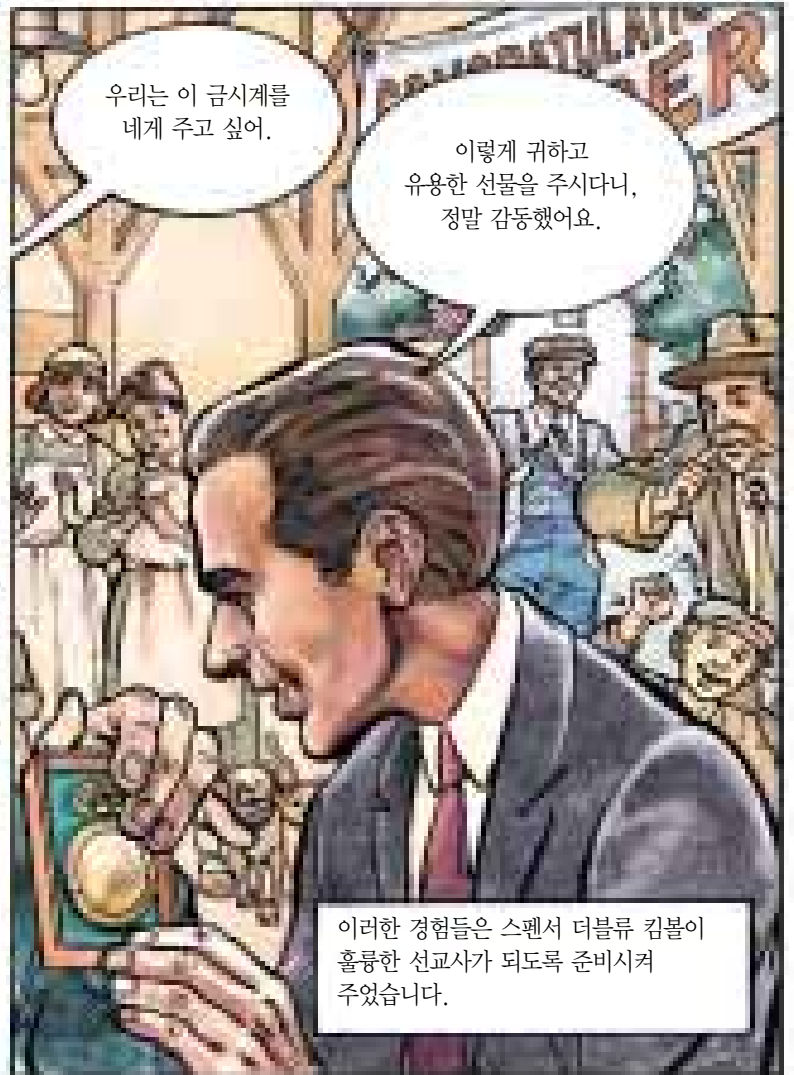


그러나 스펜서와 그의 친구들은 시기를 피우는  
상사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몰문들은 좋은 사람들 같아.  
나는 이곳에서 어떤 말썽꾼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희 둘은  
해고야.

스펜서가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그의 상사는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스펜서는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시계를  
네게 주고 싶어.

이렇게 귀하고  
유용한 선물을 주시다니,  
정말 감동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스펜서 더블류 김블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 성찬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열어내고 싶지 않으면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 로렐 롤핑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어떻게 고통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더욱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되새기며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제3니파이 18: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삶에서 큰 축복입니다.

**만드는 방법**

마분지 위에 두 원들을 붙인 다음 그것들을 오린다. 썬기 모양으로 잘라낸 부분이 있는 원을 다른 원 위에 포갠 후 두 원의 가운데를 볼트와 너트로 조인다. 위쪽의 원을 돌려 각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한다. 초등학교 말씀이나 가정의 밤 공과에서도 이 그림 원을 사용할 수 있다. ●



원격: 미디어를 방문하시는 그리스도의 일부, 존 스타트, 오로라 시계 발행: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모렐이 포즈를 취함; 십자가에 못박으신 예수, 해리 엔디슨; 성화: 폴, 알, 부활, 해리 엔디슨

# 친절



현재 북아시아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고원웅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멜빈 리비트, 교회 잡지

“내가 먼저 친절하렵니다”(어린이 노래책, 83)

**제**가 한국 서울에서 열여섯 살의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한 후기 성도  
친구가 저를 지부 활동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겨 주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절한 회원들이 있는  
걸 보면 훌륭한 교회임에 틀림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에 저는 다시 교회에 갔고 따뜻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선교사들을 소개  
받았으며 그들은 곧 내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후에 저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 아직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배운 원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구원의 계획과  
영원한 진보의 원리가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구주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이 나의 개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지부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침례 받은 후 매주 일요일마다 저는 예배당과

마당 청소 일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로 성임 받았을 때 저는 저의 임무  
중 하나가 집회소를 깨끗이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했고 그것은 제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 더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요청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진: 고원웅 장로 가족. 재단: 심화, 브러더 피터스

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봉사 속에서 여러분은 큰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비록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녀가 생겼을 때 초등학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서울 시내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후 우리는 동네에 나쁜 유흥 업소가 몇 군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딸과 어린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어떤 애들은 네가 왜 그런 나쁜 동네에 사느냐고 물어볼지도 몰라. 하지만 걱정 마.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잖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한다면 어디에 살든 상관 없어.”

아이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이들의 훌륭한 초등학교 교사님들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 딸과 아들은 둘 다 충실한 후기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즐겁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훌륭하게 성장하고 언제나 안전할 것입니다. ●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음이었요”(모로나이서 7:37)

# 위험으로 부터의 기적적인 탈출

마이라 호크 딕  
실화에 근거함

**내** 여덟 번째 생일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그날은 자전거 타기에 아주 좋은 날이었다. 말라 언니와 친구인 리사, 그리고 나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우리 가족의 소 방목장 한쪽의 시골길 쪽으로 출발했다. 산꼭대기의 눈 덮인 봉우리들이 햇볕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나게 페달을 밟았다.

나는 두발자전거를 탄 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비틀거렸다. 도로의 앞부분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트랙터와 건초 마차에 의해 납작해진 부드러운 흙길이었다. 푸른 목초가 두텁게 깔린 들판을 지나 길이 굽어졌을 때 우리는 더 빨리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나는 상쾌한 산바람 속을 달리며 강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갈림길에 다다랐다. 우리는 들판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해서 곧장 가거나 아니면 길을 돌아 산기슭의 시내를 따라갈 수 있었다. 우리는 좀 더 모험적인 코스인 시냇물을 따라가는 길을 택했다.

말라 언니와 나는 예전에 가족과 함께 이 길로 간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쳐 놓은 막대기로 덮인 도랑을 건너는 도중 자전거가 흔들리자 나는 다소 긴장했다. 나는 말라 언니와 리사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페달을 밟았다. 거대한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울퉁불퉁한 길에 유쾌하고 밝은 무늬를 만들어 냈다.

길이 좀 더 울퉁불퉁해지자 나는 좀 더 긴장되었다. 나는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돌 때문에 타이어가 핑크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하고 나는 말했다.

“왜? 무서워?” 라고 말라 언니가 물었다.

나는 언니에게 무섭다고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냥 타이어가 핑크 날까 봐 그래.”

“그래, 가고 싶다면 가도 좋아. 하지만 우리 계속 갈 거야.” 하고 언니가 말했다.

나는 자전거를 돌리며 “잘 가”, 라고 외쳤다.

말라 언니는 “그럼 집에서 보자. 우리도 아마 너무 멀리 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혼자 집을 향해 출발했다. 길 위의 무늬는 이제 아까처럼 유쾌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어두운 숲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달을 밟았다. 도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누군가가 내 뒤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라 언니와 리사도 집으로 가기로 결정한 게 틀림없어. 이제 혼자 집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안심 되었다. 발로 자전거를 세우며 나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돌아 보았다. 말라 언니와 리사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검은 곰 한 마리가 나를 향해 곧장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꿈쩍달짝할 수가 없었다. 자전거는 철커덩하고 땅에 넘어졌다. 곰에 대해 들었던 모든 조언이 갑자기 머리 속에 떠올랐다. **달리지 마라. 달리면 곰이 따라잡을 것이다. 절대로 곰보다 앞서 달릴 수는 없다.** 나는





천천히 뒤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곰을 무섭게 해서 쫓아 버리도록 소리를 내라. 고함을 치고  
돌맹이 두 개를 세계 부딪쳐라. 나는 발 근처의 땅을 살폈지만  
돌맹이는 보이지 않고 흙만  
보였다. 나는 최대한 힘을 다해

양손으로 손뼉을 쳤다. 그러나 고함을 칠 수는 없었다. 목이  
굳어져 왔다. 곰은 계속해서 나를 향해 걸어왔다.

기도해라. 나는 살아 오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배웠다.  
주일학교 교사님은 곰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적이 있었으며 기도를 강조하셨다. 나는 머리를 숙인 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꿈으로부터 구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손뼉을 치면서 나는 가슴 탈출 방지용 도랑 쪽으로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다. 소가 건널 수 없다면 꿈도 아마 건너기 힘들 것이었다. 어찌면 꿈이 넘어져서 내가 집까지 달아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사이가 넓은 들보들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러 건너갔다.

꿈은 씩씩거리며 침을 흘렸다. 나는 꿈이 도랑을 쉽게 건너 나를 따라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꿈은 뒷다리로 일어섰다. 나는 꿈이 으르렁거리며 앞발을 벌리고 나를 향해 올 때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서 버렸다. 꿈은 내 앞에 우뚝 섰고 나는 꿈의 날카롭고 축축한 이빨을 볼 수 있었다. 갑자기 꿈이 내 머리를 내리쳤다. 그 크고 뒤틀린 발톱이 내 머리카락 속에서 엉키며 나를 땅바닥으로 내리칠 때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꿈은 다시 네 발로 걸으며 나의 허벅지를 물고 나를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나를 길 건너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때 즈음에 말라 언니와 리사가 나를 발견했다. 말라 언니는 꿈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꿈은 곧 흙 길을 가로질러 산기슭으로 나를 끌고 갔다. 꿈은 펄시 나를 울창한 덩굴 속으로 끌고 갈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 바지가 찢어졌다. 바지는 고무줄 허리 밴드를 포함해 앞뒤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기적으로 꿈의 이빨은 내 살을 꿰뚫지는 않았다. 나는 후다닥 일어섰다. “뛰어!”라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렸다.

꿈이 내 바지를 물고 있는 동안 나는 말라 언니와 리사를 향해 달렸다. 바지도 없이 신발 한 짝만을 신은 채 나는 올림픽 육상 선수처럼 빨리 달렸다. 나는 역시 달리고 있던 말라 언니와 리사를 따라잡았다. 우리는 덩굴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 개울 쪽으로 달렸다. 가시 들장미가 내 다리를 할퀴었지만 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잠시도 쉬거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철망 울타리를 지나 개울 속으로 철벽거리며 들어갔다. 나머지 신발 한 짝도 통나무 밑에 끼 버려 잃어 버렸다. 개울을 건넌 다음 젖은 축사를 가로질러 달려서 집에 거의 다다랐다. 나는 울타리를 가까스로



“우리 생활에서의 많은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신앙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1907~1995년),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20쪽

통과해 현관 계단에 뛰어 올라 앞문으로 들어갔다.

부모님은 신발도 바지도 없이 온 몸이 굽힌 나를 보시고는 질문을 퍼부으셨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외치셨다.

“바지는 어디 있어? 온 몸에 굽힌 자국은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물으셨다.

아직 두려움에 찬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말을 더듬고 숨을 헐떡거리고 울먹이면서 나는 마침내 입을 떼었다. “나 ... 고 ... 고오 ... 꿈!”

말라 언니와 리사가 현관으로 달려왔고 언니는 엄마 아빠께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말씀드렸다. 나를 진정시키려고 엄마는 따뜻한 목욕물에 나를 담그셨다.

그날 저녁에 깨끗하고 안전한 가운데 우리는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손바닥은 힘을 다해 손뼉을 쳐서 푸른 색으로 멍들어 있었고 다리는 가시덤불에 굽힌 상처투성이었지만 꿈에 물린 흔적은 없었다. 꿈 발톱이 내 머리를 스쳤고 이빨이 다리를 물었지만 살이 찢기지지는 않았다. 만약 꿈 발톱이 내 머리에 좀 더 가까이 닿았거나 이빨이 내 허벅지를 물었더라면 나는 증상을 입었을 것이며 도망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던 음성은 바로 성신의 음성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적으로 축복해 주셨다. ●

### 색칠하기

나는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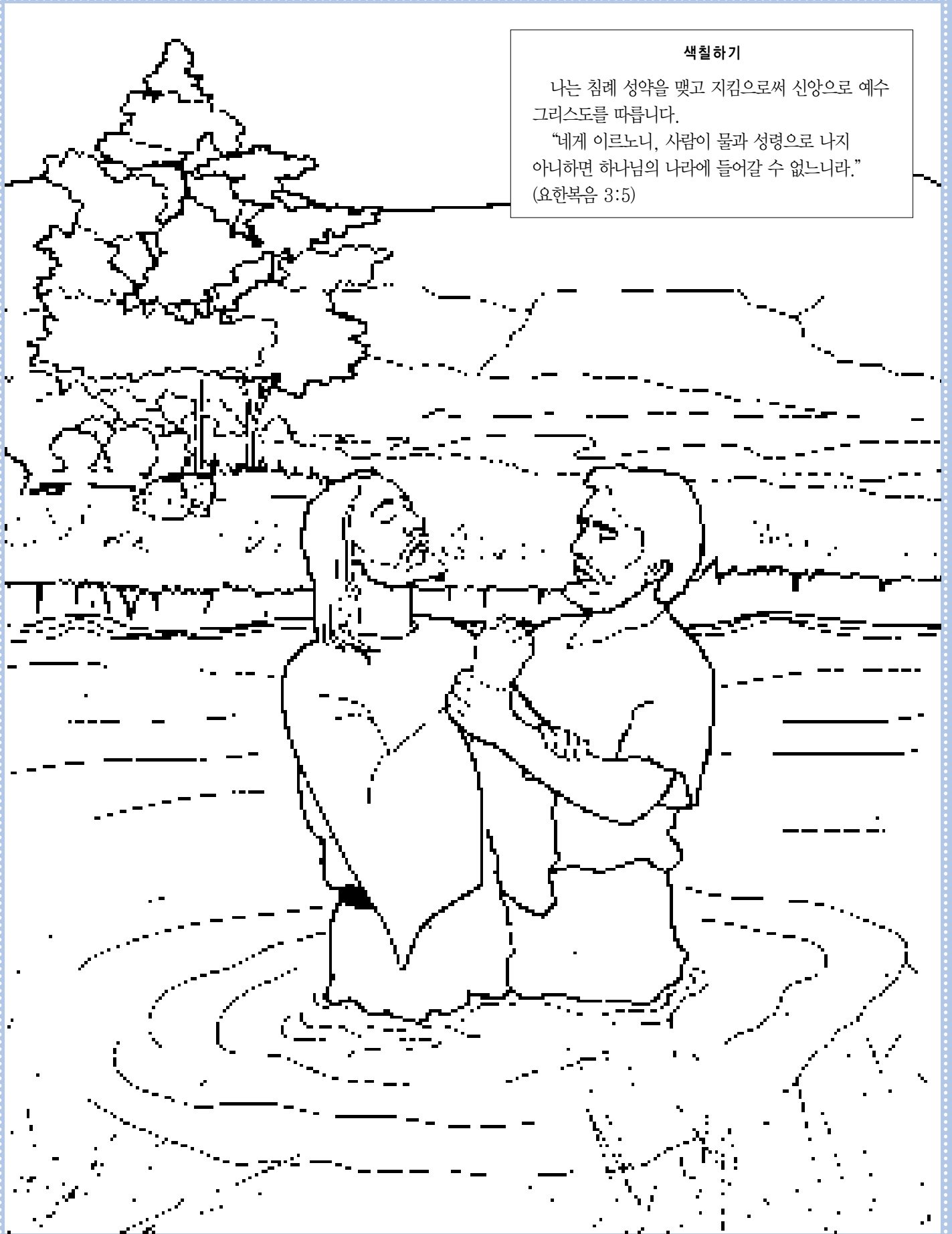


사진: KGB DESERT MORNING NEWS



고든 비 힝클리 회장(오른쪽)과 제일회장단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이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기공식에 참여하고 있다.

## 계속되는 성전 사업

###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

**20**06년 11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을 두 번에 걸친 모임을 통해 재헌납하였다. 1983년 10월에 처음으로 헌납된 이 성전은 15개월 간의 보수 공사를 통해 침례탕과 인봉실이 확장되었고, 부모에게 인봉되는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센터가 마련되었다.

솔트레이크 시티, 뉴칼레도니아, BYU하와이 캠퍼스 및 타히티 지역의 스테이크 센터에 중계된 재헌납식에는 약 1만 명의 타히티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6년 12월 16일,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기공식을 감리했다. 이 자리에는 제일회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사회를 맡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그 밖의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이 함께 했다.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은 59미터 높이의 단일 침탑 꼭대기에 2.7미터 높이의 모로나이 천사 상을 올릴 예정이다. 성전은 오커 산 자락의 약 13,500평 부지에 건립될 것이며 동쪽으로는 와사치 산맥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오커 마운틴 성전이 세워질 유타 주 사우스 조든



유타 오거 마운틴 성전

시는 세계 최초로 두 개의 성전이 있는 도시가 된다. 유타 조던 리버 성전 역시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새로 세워지게 될 이 성전은 유타 주의 13번째 성전이 될 예정이다.

#### 과테말라

##### 깨찰테낭고

유타 오거 마운틴 성전 기공식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과테말라 깨찰테낭고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

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성전은 과테말라의 두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깨찰테낭고에 세워질 이 성전은 힝클리 회장이 말하는 소규모 성전이 될 것이다. 199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에 의해 소개된 소규모 성전은 더 많은 성도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규모가 큰 성전들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

#### 기타 성전들

브라질 쿠리티바, 유타 드레이퍼, 파나마 파나마시티,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 및 아이다호 트윈폴즈 성전이 건설 중에 있다.

최근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교회의 성전은 총 135개이다.

전 세계 성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교회 성전 웹사이트([www.lds.org/temples](http://www.lds.org/temples))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 강연을 통해 가족 역사 온라인 작업의 미래를 살펴보다

에린 핏처, 교회 잡지

**가** 족 역사 탐구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라고 2007년 1월 9일에 열린 강연에서 리치 러닝 형제가 말했다. 이 강연은 Utah Genealogical Association (유타 계보 협회)의 후원으로 해마다 열리는 Salt Lake Institute of Genealogy(솔트레이크 계보 학회)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약 200여 명이 “화강암 산 동굴 기록 보관소를 열며”라는 제목의 이 강연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회의 제작 관리 책임자들과 교회의 가족 역사부는 계보 탐

구의 기술적 진보를 스캐닝과 색인 작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제품관리 부서의 책임자인 러닝 형제는 이러한 변화들을, 계보 조사자들을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드는 단계로 묘사한다.

#### FamilySearch 스캐닝

러닝 형제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고속도로는 교회의 화강암 산 동굴 기록 보관소에 있는 약 50억 건의 역사적 문서들을 마이크로필름 형태에서 인터넷으로 접

근 가능한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하는 FamilySearch 스캐닝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와사치 산맥에 위치한 화강암 산 동굴 기록 보관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족 역사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다. 직원들은 선진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곳에 보관된 마이크로필름들을 고품질의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한다.

FamilySearch 스캐닝 제작 관리자인 데릭 돕슨 형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캐닝 작업은 이 보관소에서 5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기술적 발전은 이 과정을 몇 년 전에 비해 적어도 네 배는 빠르게 만들었고 화질 역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지금은 약 20분 정도면 마이크로필름 한 롤에 담긴 정보를 1,200여 개의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러닝 형제는 이러한 디지털화 작업으로 인해 계보 사업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조사자들은 4,500개의 가족 역사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마이크로필름들을 주문하는 대신 가정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을 통해 문서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의 인터넷 기반 계보 서비스인 FamilySearch는 중요한 계보자료들을 입

수하여 보존하고, 이러한 기록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FamilySearch 스캐닝은 이러한 주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입니다”라고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공보 관리자인 폴 노타 형제는 말했다.

### FamilySearch 색인 작업

FamilySearch 스캐닝과 연계하여, 수천 명의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정보 색인도 만들어지고 있다. 자원 봉사자들은 디지털 영상으로 되어 있는 역사적 문서들로부터 가족 역사 정보를 추출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관련 자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종전에는 초출 작업이라 불리었던 FamilySearch 색인 작업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역사적 문서들을 다운로드 받은 후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은 한 시간 이내로 완료가 가능하다.

돕슨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스템은 단시간 안에 방대한 양의 작업을 마칠 수 있게 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계보 탐구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편하고 알기 쉬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름들을 색인 작업하기 위해 삼십 분에서 한 시간 가량을 투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역시 FamilySearch 색인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판 FamilySearch 색인은 2005년 9월에 선보여졌으며, 2006년 말까지 1,200개 스테이크와 협력 단체의 25,000명이상이 FamilySearch 색인 작업에 자원 봉사자로 등록하였다.

이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 회원들은 해당 지역의 와드나 지부 지도자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FamilySearch 색인 작업의 자원 봉사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노타 형제는 계보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계보 사업에 관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기록들을 사용가능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파악하고 그들 자신을 조상들에게 연결시킬 수 있게



이제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스캔된 정보를 만들어 가족역사 조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FamilySearch 스캐닝과 Family Search 색인 작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는 웹사이트 [www.familysearch.org](http://www.familysearch.org) 또는 [www.familysearchindexing.org](http://www.familysearchindexing.or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 지역 사회를 단합시킨 캐나다의 종파를 초월한 미술 전시회

스테파니 룡, 교회 잡지

**교**회의 신회원이며 와드 선교사였던 손 플린트 형제는 그가 사는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무스조 시의 모든 사람들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나누기를 원했다. 플린트 형제는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무스조에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선교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로 주의를 끌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통해 교회에 대한 많은 그릇된 인식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플린트 형제는 말했다.

플린트 형제는 와드 선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대립을 피하면서도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지역 사회와 30개 이상의 다른 교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이라는 공통된 끈으로 모든 사람을 화합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끝에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복음 미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플린트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교사들 중 한 명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미술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무스조 지역의 모든 교회를 초대하여 각자의

작품을 전시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6년도 복음 미술 전시회가 탄생했다. 무스조 와드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전시회가 홍보되었고 계획이 세워졌다.

40개의 대형 컬러 포스터와 다른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종교적 작품을 전시하도록 독려하는 초대장이 제작, 배포되었다. 와드 선교 책임자인 게리 밀러 형제에 따르면, 32,000개 이상의 소형 포스터 역시 회원들의 손에 의해 마을 곳곳에 전해졌다.

또한 밀러 형제는 와드의 청소년들 역시 이 작업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청남들은 회장인 론 바치우 형제의 지도 아래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150개의 이젤(역주: 그림 그릴 때 화판을 받치는 삼각틀)을 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신문인 *Times-Herald*는 다가오는 전시회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 CHAB 역시 전시회에 대한 방송을 했다.

하지만 플린트 형제는 전시회를 며칠 안 남긴 시점에서 전시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전시회를 사흘 앞둔 시점까지도 다른

교회들이나 비회원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플린트 형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남은 이틀 동안의 간절한 기도 끝에, 성 안드레 연합 교회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 속한 10명의 주민들이 작품을 출품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전시회는 예정대로 열렸고 여섯 개 부문에 걸쳐 총 14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선교사들은 전시회장에서 관람객들의 질의에 답했고 교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전시회 관람 인원이 수백 명까지는 아니었지만, 플린트 형제는 그가 바랐던 대로 무스조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 친근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는 데 성공했다.

“어떤 종류의 대립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영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플린트 형제가 감상을 말했다.

자신이 소장하던 1500년대 작품인 메이슨 신전의 티베트산 목제 복제품을 전시회에 출품한 빅키 스파이서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평소에 저는 유대교를 믿는 신앙 때문에 종교적 미술 전시회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름다운 작품들도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물론 교회 안의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미술 전시회가 연례 행사로 자리잡힐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또 다른 전시회를 열자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

“성 안드레 연합 교회는 이번 미술 전시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전시회를 연



것은 멋진 생각이었으며 내년에는 자신들의 교회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내년에도 이러한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으며, 그들의 친구에게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라고 플린트 형제는 말했다. ■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경전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약 125,000명의 교회 회원들은 앞으로 온라인 후기 성도 경전을 통해 모국어로 합본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2007년 1월부터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몰몬경 합본 공식 번역본을 <http://scriptures.lds.org>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판 후기 성도 경전은 종전까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었다.

교회 Curriculum Department[교과과 정부] Internet Coordination Group[인터넷 조정 그룹]의 책임자인 론 슈웬디먼 형제에 따르면, 기존의 인쇄판 경전을 인터넷판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은 변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행해지는 대조, 검토, 수정 작업에 의해 좌우

된다.

그밖의 몇몇 언어들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변환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경전 위원회의 서기인 케이 앤더슨 형제는 “포르투갈어가 곧 제공될 예정이며 다른 언어들도 뒤를 이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슈웬디먼 형제는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회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모국어로 후기 성도 경전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재 우리는 경전 위원회와 공동으로 차후에 작업할 언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금년에 가능한 많은 종류의 언어로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스페인어판 인터넷 경전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판 온라인 경전은 몰몬경 합본(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과 경전 안내서(뜻풀이와 전후 참조 성구를 곁들인 복음 주제 목록)를 비롯하여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 교회 역사 연대기, 성경상의 사건 및 교회 역사와 관련된 사진 및 지도와 같은 기타 학습 자료에 대한 링크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경전 자료를 이용하려면 <http://scriptures.lds.org>로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English”를 클릭한 후,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

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



몰몬경 합본과 관련 학습 자료들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제공되고 있다.

## 새롭게 선보이는 통가어와 아이티어 몰몬경 합본

**통**가어와 아이티어를 사용하는 교회 회원들은, 처음으로 모국어로 된 몰몬경 합본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80,000명의 통가어 사용 회원들과 14,000여 명의 아이티어 사용 회원들은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경전 안내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전 번역 관리자인 토드 해리스 형제는 이 몰몬경 합본에 새로운 교회 지도 및 사진, 교회 역사 연대기 등이 포함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전 위원회의 서기인 케이 앤더슨 형제는 통가어로 된 몰몬경은 1946년에 출간되었고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는 1959년에 출간되었지만 이번 합본 경전의 출판으로 인해 처음으로 세 권의 경전이 한 권으로 엮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이티어 몰몬경은 1999년에 나왔지만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는 이번 합본 경전 출판을 통해 처음으로 선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가어와 아이티어 합본 경전 모두 몰몬경의 최신 번역본과 주석을 담고 있다.

해리스 형제는 번역자, 감수자, 신권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팀은 선정된 언어로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 함께 일하며, 이를 완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각의 언어에 따라 상이하다고 말했다.

교회의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에게 개인 경전을 소장하여 정기적인 학습과 교회 모임, 임무지명 등에 활용하라고 권고해오고 있다. ■

## 후기 성도 자선회, 어부들을 바다로 귀환시키다

**교**회의 인도주의 단체인 후기 성도 자선회는 또 다른 자선 단체와 함께 어선 복구 작업을 도왔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 지역에 거주하는 27명의 어부들이 조업을 재개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용 선박 볼리비아호는 2004년에 닥친 쓰나미로 인해 파손되어 크롱아체 강에 침몰되었다. 두 달여 동안 물 밑에 잠겨 있었던 볼리비아 호는 미 육군과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의 도움을 받아 인양된 이후 그곳에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후기 성도 자선회와 오스틴 국제 구조 및 구호 기구(Austin International Rescue and Relief Operations)는 이 대형 어선의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작업은 2006년 11월에 완료되었다.

선상에서 지역 사회의 이맘(이슬람교 사회의 지도자)이 축복을 한 후, 물 위에 배를 띄웠다.



배의 본 소유주와 그의 아내는 쓰나미 때 목숨을 잃었으나 그들의 세 자녀가 생존하여 앞으로 이 어선을 통해 벌어들일 수익의 50퍼센트를 받게 될 것이다. ■

후기 성도 자선회는 2004년 동남 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의 피해로 파손된 대형 어선 볼리비아 호의 복구를 도왔다. 어선을 통해 얻게 될 수익의 절반은 쓰나미로 사망한 소유주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 교회, 토네이도의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주민들을 돕다

**세**차례의 토네이도가 미국 플로리다 중부 지방의 20여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지 24시간이 채 안 되었을 때, 500명의 교회 회원들이 구호의 손길을 뻗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2007년 2월에 불어닥친 이번 토네이도로, 14개의 회원가정을 포함한 1,500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되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비록 회원들의 가옥이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피해 지역의 회원들과 선교사들 모두 무사했다. 신권 지도자들은 집을 잃은 14가족들이 거처를 옮기는 일을 도왔다.

약 400명의 후기 성도 자원 봉사자들은 청소와 잔해 제거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지시 사항을 전달받기 위해 올랜드 교회 건물에 모였다. 도시의 다른 지역에는 1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이 데일랜드 지역의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모였다.

교회는 인력뿐만 아니라 방수천, 발전기, 전기톱, 장갑, 망치, 못, 청소용품 세트 등을 제공하였다.

이번 복구 작업에 참여한 오비에도 지역의 교회 회원 브래디 닉슨 형제는 “피해

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적어도 그들이 생존했으며 우리가 그곳에 와서 돕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고마워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회는 미리 식량과 식수를 포함한 필수품들을 플로리다에 위치한 교회 창고에 갖추어 놓고 있는 상태였다. ■



교회 회원들이 플로리다 주의 대형 토네이도로 발생한 잔해들을 치우고 있다

## 교회, 수단 피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보내다

**20**04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수단과 차드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반군과 정부 조직들간의 계속되는 무장 충돌로 야기된 인도주의적 필요사항에 대해, 여러 단체들과 손을 잡고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교회의 긴급 구호 활동은 피난민들에

게,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보충제 Atmit 약 363톤을 지원하였다. 또한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Red Crescent Society, International Medical Corps.와 같은 협력 단체들의 공조 가운데 의료용품, 위생용품 세트와 담요가 보내졌다.

2003년 이후 수단의 다르푸르 지방은 분쟁 지역이 되어 왔으며, 2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교회 복지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지역 상황을 주시하며 협력 단체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2007년 6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7년 6월 호 함께 나누는 시간 자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기억하라”를 참조한다.

1. 신문 기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어린이들에게 복음 그림 패킷 208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다. 기자는 여섯 가지 사항을 알아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종이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낱말들을 적은 다음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각각의 낱말에 대한 답을 찾아 달라고 한다. 마태복음 3:13~17을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가 될 수 있으며, 어디서에 대한 답은 “요단 강에서”가 될 수 있다.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면 내용을 종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음악 책임자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침례”(어린이 노래책, 54~55쪽)를 부를 수 있게 한다. 처음 다섯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곡의 1절에 담겨 있으며, 왜에 관한 답 역시 2절에 나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모범이 되셨으며, 우리 모두는 침례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2. 빵 한 덩어리와 물이 담긴 주전자를 보여 준다. 복음 그림 패킷 604 (성찬 전

달)를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평범한 빵과 물이 성찬 빵이나 성찬 물과 어떻게 다른지 물어본다. 성찬은 신권의 권세에 의해 축복되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해 준다.

신앙에 충실함 책자의 성찬에 관한 부분과 복음원리 제23장을 활용하여 “누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누가 성찬을 전달합니까?” (신권 소유자, 대체로 집사),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 우리는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와 같은 질문들을 만든다. 어린이들이 성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질문한다. 성찬에 관한 사진을 이용하여 퍼즐을 만든다. 사진을 질문 개수만큼의 퍼즐 조각으로 오린다. 각각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때마다 정답을 말한 어린이가 나와 퍼즐 한 조각을 칠판에 붙이게 한다. 퍼즐이 완성되면 구주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성찬은 정숙함을 요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3. 노래 발표: “주님의 복음 따라”(어린이 노래책, 72쪽).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나요?”라고 물어본다. 많은 아이들에게 답할 기회를 주어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그것들을 칠판에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 주겠다고

말한다. “주님의 복음 따라” 1절을 불러준다.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주님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 이 노래의 1절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칠판에 적혀 있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물어본다. 이 노래의 후렴구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하면 복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후렴구를 부른다. 후렴구는 결심 의지를 담고 있으며 반복된다고 설명한다. 말과 행동이란 표현을 가리킨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에는 경전 읽기가 있어요” 혹은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복음 생활”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복음 생활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다.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관해 간증한다. ■



##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사진 촬영: 박영서



저는 이제 백 살이 넘었습니다. 아마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이 땅에 주님의 참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던 그 무렵에 저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미 손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오십이라는 나이는 저물어 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저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간 삶보다 남은 삶이 짧다는 생각으로 늙음이란 단어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참된 복음은 찬란한 여명이고 푸르른 나무였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전도 읽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아 가면 갈수록 저와 아내의 마음속엔 어느새 ‘늙음’ 대신 ‘열정’과 ‘봉사’라는 기운찬 언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보내는 하루는 지난 세월을 모두 합친 것보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청운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무렵, 저희 부부는 앤드리스 선교부 회장님께 부산에 가서 전도할 것을 부름 받고 선교사 네명과 함께 지금의 수정 와드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지만 부름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바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먹을 생각도 못 할 정도로 바쁘게 전도를 하였고 온종일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새 회원은 백 명 가까이로 늘어났고 저는 교회의 관리인 일까지 하면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쁨도 일러가 없어서 난방을 위해서는 연탄을 떼야 했는데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8개의 연탄을 떼며 예배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부 회장이 되기도 하고 관리인이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 살이 넘어 증풍을 앓고 있는 노인의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 못한 가 봅니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안개처럼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 년, 이십 년, 길고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은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행복했다는 사실

입니다.

아내는 몸져 누워있고 저는 병들어 근래 3년 간 집 밖으로 나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도 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신권 형제들이 집으로 찾아와 성찬을 나눠줍니다. 아파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면서 때로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온 몸을 바쳐 평생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싶어 슬프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기도했습니다. 늙고 병든 육신은 안식일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누워있지만 마음만은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 지금도 오래 오래 기도를 합니다.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새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시 행복해집니다. 멀리 떠날 날을 가까이 두고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잘되어도 하나님, 못되어도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믿으십시오. 의심 말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백 살 넘게 살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간증이자 여러분에게 항상 전하고 싶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여호와와의 생명수 안에서 길이길이 생활하다가 먼 후일에 하나님의 문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먼저 간 제가 웃음으로 나가서 여러분께 인사하고 영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이 기사는 이수강 형제의 간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이수강 형제가 몸담고 있는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의 김양우 형제와 신영숙 자매가 이수강 형제의 간증을 녹취하고 기록하는 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수한 머리 모양

단정한 복장

무릎을 덮는 치마

**미** 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가 남긴 다음 명언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크다. “모든 세대는 지난 유행을 비웃는다. 그러나 새 유행은 종교처럼 따른다.” 유행을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이자 선한 일이 되는 요즘, 표준을 따른다는 것은 종종 낡고 고루한 일로 치부된다.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옷과 최신 머리 모양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선정적인 문학과 경박한 음악들은 청소년들의 가치판단을 흐리게 한다. 유행이라는 이름의 혼란과 불안, 유행이라는 이름의 낮은 가치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선지자 고든 비헝클리 회장이 전한 말씀은 청소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누

##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표준, 그 자유로운 가치

구보다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무에 더욱 충실합니다. 유혹에 더욱 강력하게 맞섭니다.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월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2~85)

수시로 변하는 유행과 달리 교회의 높은 표준은 변하지 않는다. 교회는 변해가는 풍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관습에 타협하고자 도덕적인 표준을 변경하지 않는다. 표준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구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표준은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한다. 또한 표준은 헛된 욕심과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에서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한다. 청소년들이 단정한 복장을 할 때,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경 되지 않는 주님의 표준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표준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잘 나와 있다. 청소년들이 흔들림 없이 표준을 지킨다면 고든 비헝클리 회장의 말처럼 주님은 기꺼이 청소년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다음 편지는 십대 자녀를 둔 광주 스테이크 조용현 회장이 직접 쓴 것이다. 편지에 나와 있는 권고와 애정의 말은 이 시대 모든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사진 촬영: 이경민, 채나 모델: 김윤미 (민주 스테이크 용인 지부), 채나 모델: 최현규 (민주 스테이크 용인 지부)

### 사랑하는 십대의 자녀에게

얼마 전 금식 간증 시간에 자발적으로 연단에 나가 훌륭한 간증을 전하던 너의 모습을 얼마나 대견스럽고 벅찬 마음으로 보았는지 모른다.

새벽반 세미나리에 스스로 일어나 다녀오고 안식일이면 교회에서 봉사하던 네 모습들이 자연스레 떠올랐고 하나님께 이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

나의 청소년 시절에는 결코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을 보며 히클리 회장님께서 너희들을 가리켜 "... 대단히 신뢰하며, 책임과 기회뿐 아니라 유혹 또한 가장 큰 이 시대에 태어난 특별히 선택 받은 영들"이라고 하신 말씀에 공감했다.

이 말씀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와 자랑스러움뿐 아니라 선지자의 깊은 염려가 담겨 있구나. 이 염려란 너희들이 헤쳐 나가 기에는 이 유혹의 바다가 너무 넓고 깊다는 것이며 너무 많은 십대의 청소년들이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따르기만 하면 능히 목적지로 인도하는 등대가 있구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를 읽다가 이 등대의 빛을 느꼈다. 그 소책자를 한번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듭 반복해서 읽기를 바란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라는 부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네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를 가벼이 여기지 말기 바란다. 선지자가 제시한 표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감사, 교육, 친구, 복장과 외모, 오락과 대중 매체, 언어, 테이트, 순결, 정직, 건강과 봉사, 안식일 준수 등에 대한 표준들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지혜와 자긍심의 원천이 될 것이다.

얼마 전 너의 두발 문제로 대립 되었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나와 너 사이의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라 너와 표준 사이의 문제란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숙고해 볼 때 표준을 지키기가 더 쉬울 것이다. 표준을 즐겨워하고, 표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표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바란다. 히클리 회장님의 신뢰에 나의 신뢰를 더한다.

너의 사랑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 4월 어느 밤에 아빠가 -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Charity Never Faileth*



1842년 3월 17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미망인과 고아들을 도우며 자선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취지 아래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이후로 165년이 지났다. 에머 스미스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18명의 자매들이 모여 조직

된 상호부조회는 이제 전 세계적

으로 500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다. 고든 비 힙클리 회장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상호부조회는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간 전국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을 기념하는 각종 모임이 있었다.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상한 곳을 보듬으며 빈 곳을 채워주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섬세한 손길은 재능을 발표 할 때도 빛을 발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현장들을 소개한다.

## 합창부터 연극까지

해마다 찾아오는 창립기념일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하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달씩 걸려서 준비하는 합창과 연극 등에는 자매들의 재능은 물론이고 열정과 노고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래서 때로는 어설프고 가끔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녀들의 공연은 아름답게 빛난다.

바로 그런 공연이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에서도 있었다. 3월 10일,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무대를 누빈 일산 와드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시작으로 춤사위가 고왔던 원당 와드의 부채춤, 그리고 불광 와드와 녹번 와드의 열정적인 춤까지 즐거운 공연이 이어졌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신촌 와드 자매들이 준비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무대 의상까지 맞춰 입은 자매들의 모습에서 오랜 연습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3월 17일 송파 와드에서 있었던 서울 영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 행사에서도 자매들의 재능은 빛을 발했다. 수지 와드 자매들이 준비한 합창은 감미로웠고, 성남 와드의 부채춤과 차차차, 그리고 분당 와드의 태극선, 송파 와드의 뱃놀이와 개구리 울동은 아름답고 흥겨웠다. 두 편의 연극, 강동 와드의 ‘솔트레이크 골짜기에서’와 이천 지부의 ‘모세야 잘 있거라’는 공연장 구석구석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부산 스테이크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에서는 스테이크 여성 중창단이 부른 ‘어머니’라는 곡이 귀를 사로잡았다. 금정 와드 자매들은 오랫동안 준비한 사물놀이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그 외에도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준비한 차차차와 해운대 와드의 연극 등 많은 순서들이 박수갈채 속에서 공연되었다.

초등회부터 대제사까지 지방부 내의 모든 회원들이 모인 부산 서 지방부 상호부조회 창립기념 모임도 성황리에 치러졌다. 2007년 3월 17일에 열린 모임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장로 정원희 형제들이 준비한 사진전이 열렸고, ‘흑설 공주와 백설 공주’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연극과 에어로빅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가장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자매들이 준비한 연극을 가미한 커플 댄스



열기가 뜨거웠던 순서는 지부 대항 노래 자랑이었다. 각 지부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고운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한편, 바다 건너 제주 지방부에서도 상호부조회 창립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있었다. 그 중 특히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던 순서는 개척자들의 강한 신앙과 간증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 연극 '아름다운 사람들' 공연이었다. 제주 지방부 자매들은 한 마음이 되어 개척자들의 험난하고 아름다운 여행 이야기를 표현해 큰 박수를 받았다.

### 특별한 시도

이번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에서는 특별한 시도도 이어졌다. 마산 스테이크의 경우 각 와드 지역에 맞는 모임을 진행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거라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의견으로 와드별로 기념 모임을 진행했다. 또한 각 와드의 모임과는 별개로 마산 스테이크 내의 풍호, 진해, 통영, 진주 와드와 사천 지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함께 모여 고아원과 영아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도 여느 때와 달랐다. 3월 17일 신당 와드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각 와드가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는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스테이크 회장단 메시지와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간증을 듣고 교회 영화 '유산'을 보는 것으로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상호부조회가 설립된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3월 24일 열린 순천 지방부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은 공부하는 시간이었

다. 순천 지방부에서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남 형제를 초청하여 '어떻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매일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김미남 형제의 강의를 통해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새로운 자신감과 의욕을 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렇듯 제165회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진행 방법만 각기 다를 뿐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 같았다. 그것은 바로 상호부조회 모토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합창을 할 때도, 연극을 할 때도, 모임이 끝난 후 참석한 회원들에게 뜨거운 밥 한 주걱을 떠 줄 때도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얼굴은 사랑으로 밝게 빛났다. 일찍이 조셉 스미스 회장이 상호부조회를 일컬어 "여성들이 이렇게 조직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듯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교회는 따뜻하고 밝게 빛난다. ■

〈곽채림 기자, 김민정 기자, 김정민 기자, 김정은 기자, 이숙희 기자, 이인주 기자, 이진희 기자, 조연화 기자〉

위쪽부터 순서대로: 부산 서 지방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공연한 '흑실 공주와 백실 공주,' 부산 스테이크 여성 총창단이 부른 '어머니,' 영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공연한 수지 와드의 상호부조회 자매들, 영동 스테이크 강동 와드 자매들이 준비한 연극 '솔트레이크 골짜기에서,'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을 빛낸 원당 와드 자매들의 부채춤



사진 촬영: 김정민



사진 촬영: 이인주



사진 촬영: 이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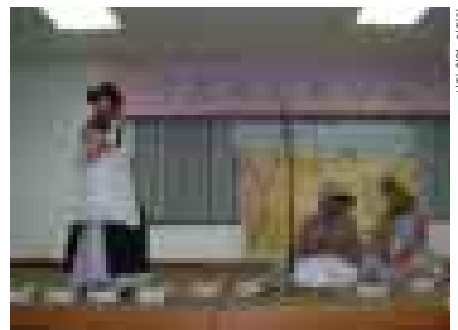


사진 촬영: 이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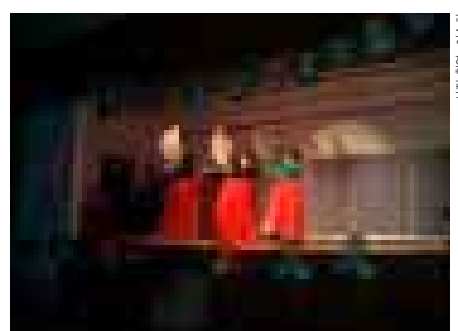


사진 촬영: 이숙희

## “이 교회는 감사의 교회입니다”

- 최윤환 장로 인터뷰



지난 3월 31일 연차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최윤환 형제가 북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 받았다. 최윤환 장로는

1957년 5월 18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73년 12월 침례를 받았다. 그 후 교회에서 성장해오며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교회 내에서 청남 회장, 세미나리 교사, 주일학교 교사,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선교부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등 여러 직책에서 봉사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안양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아 2007년 3월까지 봉사하였다. 현재 한국의 재단법인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이사장 및 한국 관리 본부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1982년 9월 25일에 구본경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선빈(대학교 4), 선웅 (대학교 1), 그리고 선윤 (중학교 3)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최 장로는 부름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됩니다.”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는 “부족한 제가 이 큰 부름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부름에 대한 소감을 대신했다. 최윤환 장로는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으며 자신은 점점 더 성숙해가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면전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교회는 감사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성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 회원들을 보며 마음 깊은 곳으로 부터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

## “마음이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장로 인터뷰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장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영학 박사다. 경영학계의 아인슈타인, 경영학계의 현자로 불릴 만큼 그의 명성은 대단하다. 지난 3월 21일, 한국에 강연 차 들른 그를 만났다.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던 크리스텐슨 장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유독 한국을 사랑

하는 이유는 그의 한국 이름 ‘구창선’ 속에 들어있다.

크리스텐슨 장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72년, 그의 나이 19세 때다. 그는 서울 서 선교부에 전임 선교사로 부름 받아 왔다. 그때 한국 이름도 받았다. 2미터가 넘는 키에 농구 선수로도 활동했던 이 젊은 미국 청년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가난하지만 겸손한 한국 사람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그는 자신의 한국 이름 석자를 자랑스레 기억하는 것처럼 35년이나 지난 선교사 시절의 추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춘천 지역에 교회

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 시절, 그는 동반자와 함께 직접 밭로 뛰며 춘천 지부 조식을 도왔다. 페인트 공과 인쇄업자를 직접 찾아 다니며 가게 청소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교회 현수막을 만들고 전단을 제작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크리스텐슨 장로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그 페인트 공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 페인트 공의 조수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인쇄업자의 가족들과 친구가 교회 회원이 됐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는 현재 미국 동북 지역의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다. 바쁜 저술 활동과 연구 중에도 안식일은 교회 일을 하고,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는 한국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 한국은 어떤 나라이고 한국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크리스텐슨 장로는 한국어로 조용하고 느리게 말했다. “마음이 아직 한국에 있어요.” 그는 영어로 다시 덧붙였다. “많은 나라 여행해 봤지만 세상의 백성 가운데 한국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친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아니 구창선 장로의 혀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 서서히 한국말을 잊어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만은 한국에 그대로 남아 한국을 추억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 ■

**대전 스테이크 <오순임 기자>**

**작은 음악회** 대전 스테이크에서는 3월 31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설양환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로 회원 및 구도자들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촬영: 오순임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스테이크 대회** 3월 10일과 11일 전반기 마산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졸업식** 3월 11일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마산스테이크 졸업식이 마산 와드에서 열렸다.



사진 촬영: 김민정

**합창 대회** 3월 3일 마산 와드에서 합창 대회가 열렸다. <기사 제공: 배성민 형제>

**효도 관광** 3월 1일, 마산 스테이크에서는 효도 관광이 모임이 있었다.

**부산 스테이크 <이인주 기자>**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졸업식** 3월 10일,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졸업식이 부산 종교 교육원에서 있었다.

**서울 스테이크 <곽채림 기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훈련 모임** 3월 18일 서울 스테이크 모든 회원이 신당 와드에 모여 선교 사업 훈련 모임을 가졌다.

**서울 남 스테이크 대회 <형상일 기자>**

**스테이크 대회** 3월 17일 서울 남 스테이크 센터에서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있었다.

**영어 연극** 3월 17일 토요일 밤에 회원과 선교사, 그리고 영어 회화반 반원들이 참여한 영어 연극 발표가 있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 <장효진 기자>**

**스테이크 대회** 3월 10일과 11일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서울 북 스테이크 <이숙희 기자>**

**스테이크 대회** 3월 17일과 18일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청녀 야영**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순천 지방부 청녀들은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청녀 야영대회 및 새로운 시작 모임’을 가졌다.

**안양 스테이크 <나선경 기자>**

**스테이크 대회** 새 스테이크 대회

로운 시작을 알리는 2007년 전반기 안양 스테이크 대회가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산본 와드에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인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의 감리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안양 스테이크의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지난 9년간 회장으로 봉사했던 최윤환 형제가 해임되고 정동환 형제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제1보좌는 김윤석 형제가 제2보좌는 박중배 형제가 각각 부름 받았다.

**인천 스테이크 <백봉욱 기자>**

**스테이크 대회** 4월 21일과 22일 인천



사진 촬영: 백봉욱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가 감리한 안양 스테이크 대회, 길영권 회장이 감리한 인천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전주 스테이크 <이나나 기자>**

청소년 축제 '나이트' 3월 10일 토요일,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재능을 발전시키는 모임인 '나이트' 행사가 있었다. ■

사진 촬영: 이이나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3기 12명/해외 2명



**김현우 장로**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대전 선교부



**주현진 장로**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부산 선교부



**박명진 장로**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부산 선교부



**최민훈 장로**  
안양 스테이크  
평촌 와드  
서울 선교부



**박영미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최승우 장로**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부산 선교부



**이지은 자매**  
서울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부산 선교부



**최현정 자매**  
카노가파크 스테이크  
센 페르난도 벨리  
4와드  
서울 서 선교부



**임효진 자매**  
마산 스테이크  
진해 와드  
서울 서 선교부



**허효진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정성희 자매**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서울 선교부



**박혜원**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유타주 탬블 스퀘어



**정진성 장로**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  
부산 선교부



**정헌식**  
강서 스테이크  
시흥 와드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감독: 이태재(전임: 김재우)

**마산 스테이크**

진해 와드 감독: 최승대(전임: 이종우)  
풍호 와드 감독: 한종완(전임: 정일중)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 감독: 윤세영(전임: 전경일)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감독: 안상현(전임: 김규태)

**서울 북 스테이크**

금촌 지부에서 금촌 와드로 변경  
금촌 와드 감독: 김경환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감독: 구본철(전임: 이경준)

**안양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정동환(전임: 최윤환)  
제1보좌: 길윤석(전임: 안병철)  
제2보좌: 박종배(전임: 길윤석)  
금천 1와드 감독: 박일훈(전임: 정동환)